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제1043호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성과급 잔치’ 없다…우울한 대기업

삼성전자 실적부진 여파로 직원들 인센티브 기대 접어

희비 갈린 조선업계… 최대실적 SK하이닉스 ‘표정관리’

매년 말 대기업 임직원들은 성과급 기대감에 부푼다. 한 해의 노고와 성과에 대한 보상이 두둑한 봉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최근 몇 년간 호실적을 기록했던 삼성 계열사들이 일제히 실적 부진에 빠졌고, 전반적 국내외 업황 부진으로 다른 대기업집단들도 성적표가 좋지 않은 탓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은 내년 1월 말 지급되는 성과급 지급 범위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각 계열사는 연초 수립한 이익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이익의 20% 이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성과인센티브인 OPI를 운영 중이다. 내년 1월 지급되는 OPI는 PS(초과이익분배금)에서 이름이 변경됐다.

지난해 연봉의 절반을 성과급으로 받았던 IM(IT·모바일)부문 내 무선사업부는 성과급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분위기다. 스마트폰사업 부진으로 IM부문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24조9000억원)보다 절반가량이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DS(부품)부문 반도체사업부는 올해 초 40% 초반의 성과급을 받은 데 이어, 내년 1월에도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별 연말 성과급 지급 전망

삼성전자	· IM부문 무선사업부 성과급 축소 예상 · CE부문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 생활가전사업부 전년비 성과급 축소 예상 · DS부문 내 반도체사업부 최고 수준(연봉의 50%) 성과급 예상
LG전자	· MC사업본부 최고 수준(기본급의 250%) 성과급 예상 · HA · AE사업본부 성과급 축소 예상
현대기아차	· 11월말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70만원 일괄지급 · 12월말 기본급의 250% 성과급 지급 전망
조선업계	· 현대중공업 성과급 지급 가능성 낮음 · 대우조선해양 기본급의 100% 수준 성과급 예상

삼성전자의 수익성 악화로 동반 부진에 빠진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등 전자계열사들은 일찌감치 성과급 기대를 접었다.

지난해 초 3년 만에 성과급 지급 제도를 재개한 LG전자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G3’를 앞세워 스마트폰사업 호조를 기록한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는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 예고돼 있지만, 전년 대비 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HA(홈어플라이언스)사업본부와 AE(에어컨·에너지솔루션)사업본부 등 상당수 부문의 임직원들은 이미 마음을 비운 분위기다.

조선업계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200%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누적 손실만 3조원을 넘어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낮다. 전년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는 대우조선해양은 기본급의 100% 수준의 보너스가 점쳐진다.

반면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연간 최고 실적을 경신한 SK하이닉스도 내년 초 두둑한 성과급 봉투가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매년 1월 말 연간 이익 목표 초과 시 일정 비율의 PS를 지급한다.

김지영 기자 gutjy@

“내려라” 기준금리 “안된다”

국내 대표 경제연구소 KDI-금융연구원 격론

■ 기재부 용역 받은 ‘KDI’

“日과 유사한 디플레 가능성 추가 금리인하 필요” 주장

■ 금융위 용역 받은 금융연구원

“디플레 우려, 성급한 추론 인하땐 가계빚 증가 부작용”

국내 대표 경제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KIF)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지난 8, 10월 두 차례 0.25%포인트씩 하향조정해 사상 최저치인 연 2.0%로 내려왔다. 때문에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은 가라앉는 듯했으나 11월말부터 KDI가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금리인하 주장을 선도하고 나섰다. 반면 금융연 대다수 연구위원들은 금리인하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

KDI는 지난달 25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디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금리인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일에는 김준경 KDI 원장이 한 행사에서 “한은에 미안하지만 한마디 하겠다. 현재는 수요가 너무 부진해 선제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때다”며 금리를 시급히 내려야 한다는 KDI 입장에 쐐기를 박았다.

KDI는 경기침체보다는 저물가에 중점을 두고 금리인하론을 펴고 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현 3%대 성장률이란 경기보다는 저물가가 지속돼 디플레이션이 발생,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빚을 내 산 3억원짜리 아파트가 디플레이션으로 2억, 1억원으로 떨어져 미치는 파급효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빚 증가와 자산유출 우려가 금리인하 반대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데, 자산과 달리 부채는 빌린 금액이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본유출 우려는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금리인하에 우호적이던 금융연은 최근 반대 기류가 짙다. 장민 금융연 연구조정실장은 “경제가 위기도 아니고 망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당장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한 것은 성급한 면이 있으며 최근 단행한 금리인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규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오를지 의문이다”며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가계빚 증가, 노년층 이자소득 감소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임진 금융연 연구위원도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며 “지금의 저성장은 재정·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규제개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소비자물가와 거꾸로 가는 오징어·채솟값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 원유가격 하락과 농산물 가격 부진의 영향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획량 감소로 오징어 가격이 1년 새 20% 급등하고 한파·폭설로 채솟값도 1주일 새 최고 63%나 뛰어 서민들의 장바구니 체감 소비자 물가는 한층 무거워졌다. 4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오징어 판매대에서 고객이 국산 생물오징어와 원양산 해동오징어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매서운 추위 속에 배추를 옮기고 있는 도매상인들의 모습.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뉴시스

‘KB, LIG손보 인수’ 승인 가닥

금융당국 긍정적 기류… 사외이사들 사퇴할듯

KB 내분사태의 책임론이 일고 있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연임을 포기하고 내년 3월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KB금융 사외이사 퇴진을 LIG손보 인수 승인 조건으로 내건 만큼 KB금융의 LIG손보 인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8명의 KB금융 사외이사는 윤종규 회장 및 임원진과 확대경영전략위원회를 열고 LIG손보 인수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일 사외이사들은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자신들의 거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사외이사들은 ‘지배구조 개선안’ 카드까지 꺼내든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결국 연임 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이사진 가운데 올해 새로 임명된 김명직, 신성한, 조재호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이경재 전 의장은 지난달 21일 윤종규 KB금융 회장 취임과 동시에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사회 ‘좌장’인 이 의장이 물러나고 임영록 전 회장의 선임부터 해임을 결정해 온 5명의 사외이사도 연임을 포기하면서 LIG손보 인수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요구했던 임 전 회장 해임, 사외이사 사퇴 등이 모두 충족된 만큼 승인을 미루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맺은 KB금융과 LIG손보 간 주식매매계약은 올 연말 만료된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KB금융이 LIG손보를 경영할 능력이 충분한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부분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LIG손보 편입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이르다”며 “사외이사 거취와 더불어 조직 전체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4일 인수 유무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담뱃값 인상 빼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0.8%”

삼성증권 “1999년 이후 15년만에 최저… 상반기 두번 금리인하할 수도” 전망

디플레이션(Deflation:자산가격 하락) 조짐에다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담뱃값 인상 요인을 제외할 경우,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삼성증권은 5일 ‘유가하락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0.8%는 지난 1999년 이후 1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담뱃값 인상 요인을 반영,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4%로 제시했다.이는 삼성증권이 지난달 내놓은 수치, 1.5%에 비해 0.1% 포인트 낮은 것이다.

정부는 아직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예측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 한국은행은 2.4%다. 민간 기관들은 지난달 일제히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대로 낮춘 상태다.

삼성증권은 내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2.4%에서 1%대로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달 “내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대 후반으로 올라가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 많으면 두차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유로존과 일본은 물론이고 견조한 확장기조를 지속하는 미국마저도 적정한 인플레이션(Inflation: 자산가격상승)을 유지하기 위해 리플레이션(Reflation)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은 금리인하 전망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리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통화를 재팽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장청기자 jcha@

데이터 뉴스 Dat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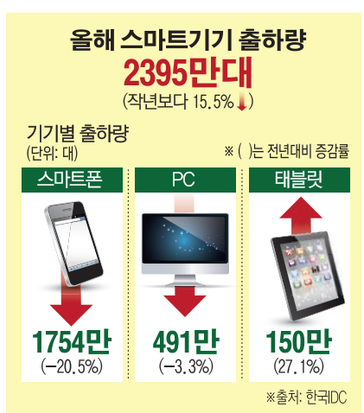
모바일·PC시장 2년 연속 감소세

국내 모바일과 PC 시장이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조사업체 한국IDC는 올해 국내 커넥티드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출하량 기준 2395만대, 매출액 기준 16조83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5.5%, 23.8% 감소한 수치다.

스마트폰은 출하량 1754만대, 매출액 12조345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5%, 29.2% 감소했다.

박성제 기자 psj@





올해 수입차 판매량 20만대 육박

수입자동차가 20만대 판매 고지를 눈앞에 뒀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11월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1만6959대로 전달보다 3.2%,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22.4% 각각 증가했다. 특히 올해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총 17만923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늘었다. 이는 올해 수입차업계의 판매량 목표치인 17만4000대를 넘어선 실적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누적 판매량 20만대 돌파도 노려볼 만하다.

김범근 기자 nova@

Star 금요섹션 15~21면

커버스토리
돌아온 대중문화상 시즌



홍기택 회장 ▶6



문규학 대표 ▶14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윤재승 회장 지분 11.61% 최대주주… 나머지 형제들도 25%

제약사 지배구조 분석

③ 대웅제약

올해는 대웅제약에 의미 있는 해다. 대웅제약 창업주인 윤영환 현 명예회장이 48년 만에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고, 윤 명예회장의 막내 아들인 윤재승씨가 입사 20년 만에 회장에 오르며 본격적으로 2세 경영의 막이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윤 명예회장이 지난 7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석천대웅재단에 출연하면서 윤 회장이 대웅그룹 지주회사인 대웅의 최대주주(지분율 11.61%)로 이름을 올리게 됐지만, 나머지 형제들이 갖고 있는 지분(25.63%)도 만만치 않아 경영승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윤 회장 외에도 윤 명예회장의 장남 윤재용씨와 차남 윤재훈씨가 각각 대웅 지분 10.51%, 9.7%를 보유하고 있고, 딸 윤영씨도 5.42%의 지분을 갖고 있다.

◇대웅그룹 지주사 '대웅'총 25개 계열사 거느려 =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웅그룹 지주사인 대웅은 12개의 자회사와 13개의 손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대웅은 상장사인 대웅제약 지분 40.73%를 보유하고 있고,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대웅바이오·산웅개발·대웅개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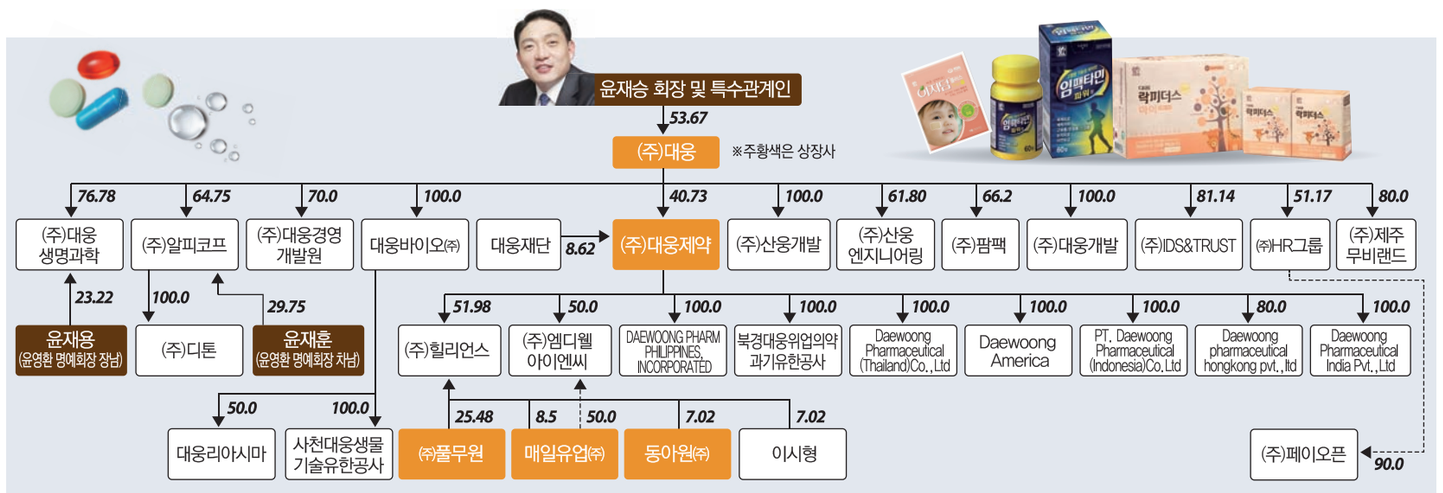
이 밖에 IDS&TRUST(81.14%)·제주무비랜드(80.00%)·대웅경영개발원(70.00%)·팜팩(66.20%)·산웅엔지니어링(61.80%)·HR그룹(51.17%)·대웅생명과학(76.78%)·알피코프(64.75%) 등도 지배하고 있다.

특히 대웅생명과학은 장남 재용씨가 나머지 지분 전부인 23.22%를 보유하고 있고, 알피코프 역시 차남 재훈씨가 나머지 지분의 대부분인 29.75%를 갖고 있다.

대웅의 주력 자회사인 대웅제약은 2개의 국내법인과 7개의 해외법인 총 9곳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해외법인 중에서는 홍콩법인만 지분율이 80%이고, 나머지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의 자회사 중 국내법인은 힐리언스와 엠디웰아이엔씨로 대웅제약이 각각 51.98%, 50.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힐리언스의 경우 상장사인 풀무원과 매일유업 그리고 동아원이 각각 25.48%, 8.50%, 7.02%의 지분을 갖고 있다. 매일유업의 경우 엠디웰아이엔씨가 나머지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매일유업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업체 엠디웰아이엔씨를 설립했고, 건강관리서비스업체 힐리언스도 세우며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했다. 또 대웅의 주요 자회사인 대웅바이오는 사천대웅생물기술유한공사와 대웅리아시마 지분을 각각 100%, 50% 갖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자회사인 알피코프도 도매업체인 디톤 지분 100%를 보유,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윤영환 명예회장 지난 7월 재단에 주식 기부…경영승계 완전 해결은 안돼

지주사 대웅, 25개 계열사 거느려… 상장사 대웅제약 지분 40.73% 보유

◇대웅·대웅제약, '바이오넷' 지분 17.41% 보유 = 대웅과 대웅제약이 비상장사인 바이오넷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하다.

바이오넷은 1999년 설립된 생체신호계측 및 감시장치의 제조판매업체다. 대웅은 바이오넷 지분 11.01%를, 대웅제약은 6.4%를 보유하고 있다.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이에 대한 장부가액은 각각 6억6785만원, 3억8806만원으로 합치면 10억원이 조금 넘는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대웅그룹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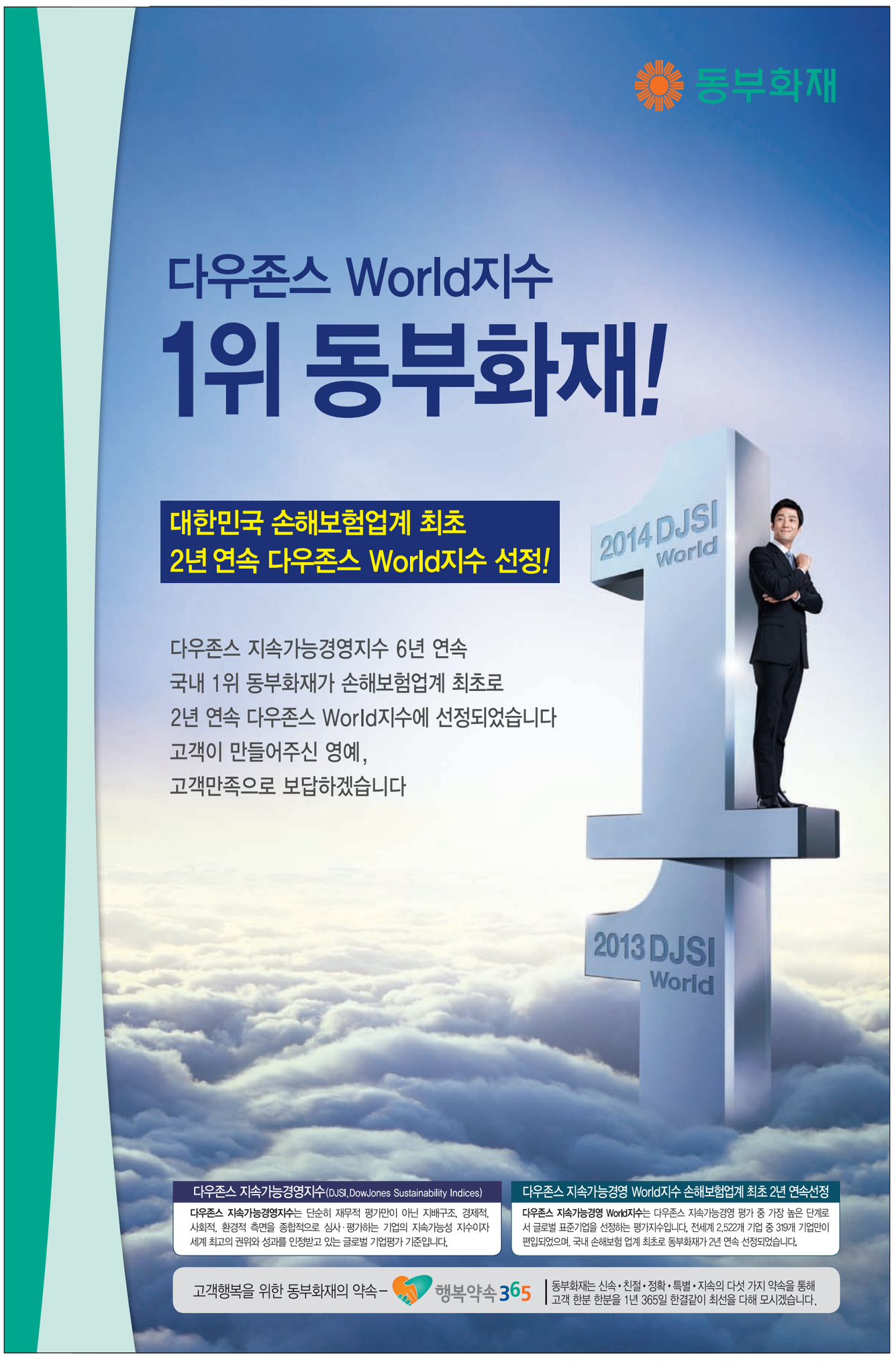
또 하나는 윤재승 회장 개인이 투자하고 있는 이지메디컴이라는 병원 물류구매대행(GPO) 업체다. 이 회사는 병원과 제약회사 간 통합업무를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분야 1위 업체로 알려진 알짜기업이다.

이지메디컴의 지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이 회사 주식 541만2107주(23.46%)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윤 회장 외에 주요 주주로는 인성TSS(15.20%), 서울대학교병원(5.55%) 등이 있다.

이지메디컴은 대웅의 자회사로 있었는데, 과거 서울대학교병원 등과의 특혜 의혹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웅이 보유 지분 전량을 윤 회장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은 지분 전량을 매각해 이지메디컴과는 연관이 없게 됐지만, 윤 회장이 여전히 개인자격으로 이지메디컴의 최대주주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강인효 기자 kangih@



'네이처' 정운호·'토니모리' 오세한

내년 IPO… 해외공략 실탄 장착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오세한 토니모리 대표

'성장위기' 브랜드숍 잇달아 기업공개

더페이스샵 창업자 정대표 '시총 1조' 도전

토니모리 '3000억 목표' 상장작업 추진

'최대어' 더페이스샵은 "아직 계획없어"

국내 1위 브랜드숍 더페이스샵 창업자인 정운호 대표가 이끄는 화장품 브랜드숍 네이처리퍼블릭이 내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25년간 아모레퍼시픽에서 시중·방문 판매를 섭렵한 화장품 마케팅 전문가 오세한 사장을 지난 5월 대표이사로 영입한 토니모리도 상장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더 이상 국내 시장에서 사업 확대를 꾀할 수 없다고 판단,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자금 조달 차원으로 풀이된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곳은 브랜드숍의 '미다스 손' 정 대표가 이끌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이다. 정 대표는 지난 2003년 더페이스샵을 설립해 론칭 2년 만에 국내 1위 브랜드숍 기업으로 만들었다. 이후 지난 2010년 더페이스샵 지분을 LG생활건강에 넘기고, 네이처리퍼블릭 지분 100%를 사들여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매출액은 2010년 495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1년 907억원, 2012년 1284억원, 2013년 1717억원 등으로 급증했지만 영업적자를 면치 못했다. 다행인 것은 적자 규모가 2011년 53억원에서 2012년 43억원, 2013년 4억8000만원으로 계속 감소했다는 점. 올해는 흑자전환이 이미 예고된 만큼 본격적 사세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IPO를 통해 확보된 실탄은 중국 사업에 투자된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은 지난 7월 중국 최대 온라인 마켓인 티몰에서 하루에 10만개나 팔릴 정도로 인기다. 판매금액만 420만 위안(약 7억원)에 달할 정도다. 네이처리퍼블릭은 "IPO를 위한 대표 주관사로 대신증권을 선정,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시장 확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적 IPO가 이뤄질 경우 네이처리퍼블릭은 시가총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 IB 관계자는 "높은 PER를 고려하면 상장 시점 시총 1조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토니모리로 자리를 옮긴 오세한 사장도 최근 대우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작업에 돌입했다. 오 사장은 1989년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해 마케팅전략부, 부산사업부, 경영진단실 임원을 지냈다. 그는 이번 상장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영토확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토니모리는 지난해 매출 1703억원과 영업이익 194억원을 달성했다. 아시아 14개국을 비롯해 유럽 2개국과 북미 2개국 등에 모두 6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뉴욕에 문을 열고 미국 시장 공략에도 돌입했다. 시가총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토니모리는 배해동 회장과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이번 상장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가속화되고 있는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향후 IPO에 나설 화장품 업체들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증권가는 더페이스샵을 대어로 꼽고 있다. 더페이스샵이 최근 브랜드숍 최초로 자체 생산설비 및 연구소를 갖춘 연구생산복합기지를 구축한 것도 이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페이스샵은 지난 3월 차석용 부회장 후임으로 취임한 배정태 부사장이 이끌고 있다. 배 대표는 1983년 LG생활건강에 입사해 생활용품·화장품·음료사업부를 두루 거쳤다. 화장품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그러나 더페이스샵 측은 상장 계획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선애 기자 lsa@

이익단체에 휘둘린 국회…정부 '세수펑크' 고민 늘었다

세법개정안 통과됐지만…세수확충 '비과세·감면 축소' 퇴색

정부의 조세정책이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중심을 못잡고 흔들리고 있다. '표'를 의식한 국회의 정치논리에 막혀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사업들이 연장되는 일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공평과세'를 위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이익단체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꺾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조세 정상화를 통한 세수 확보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업계 반대로 2년째 '없던 일로'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축소된 지 1년 만에 다시 늘어나

종교인 소득 과세법안 처리 또 무산
레저세 도입 보류…지방세수 확대 차질

◇업계 눈치 보기에 중고차·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 지난 2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용 기한이 앞으로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중고차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고 판단, 올해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세부담 증가를 우려한 중고차 업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중고차 매입액에 대한 현행 공제율(109분의 9)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고차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은 야당의 당론이기도 했다"면서 "2년 더 일몰이 연장돼 내후년에나 법 개정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가세를 축소할 경우 연 15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같은 목표는 2년 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국회에서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도 확대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재료로 사는 농수산물 구입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개인사업자는 6개월 공급가액 1억원 이하 60%, 1억~2억원 50%, 2억원 초과 40%로 설정돼 있다. 이를 국회에선 음식점 업계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하에 공급가액 1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60%를 유지하되, 1억~2억원은 50%에서 55%로, 2억원 초과는 30%에서 45%로 상향 조정해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 법제화, 올해도 물 건너가나 =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도 정치권은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종교인과세 법제화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이번에 여야가 처리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 내용이 빠졌다. 다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되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회적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인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됐지만 자발적으로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보류됐다. 과세에 따른 관련 기금 지원 감소를 우려하는 스포츠·관광 관련 단체들 및 강원랜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로써 카지노 등에 대한 레저세 부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려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카지노는 레저세를 매출액 10%로 적용하면 2012년 기준으로 지방세수가 3707억원(레저세 2648억원, 지방교육세 105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에 휘둘려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 등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안보다 후퇴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면서 정부의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세수확대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담뱃세를 2000원 올려 세수부족분을 서민 부담으로 채우면서 가장 시급하고 국민적 합의도 높은 종교인 과세는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율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소득형평성과 비과세·감면 일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세수결손이 심해져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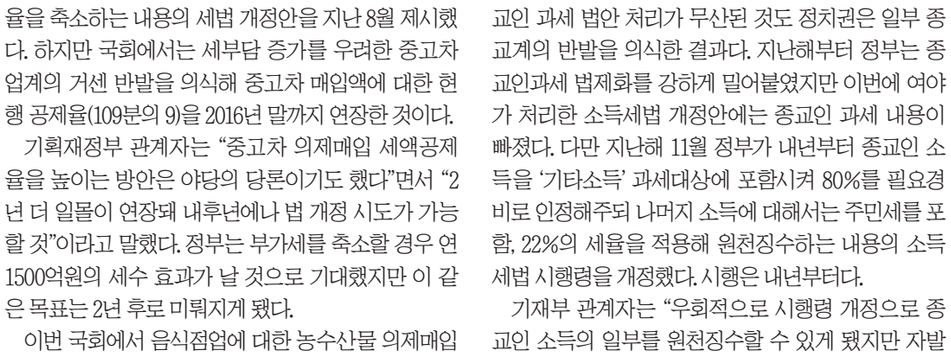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국회서 수정되거나 처리 불발된 세법개정안

법안명	항목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유지하는 현행 수준을 2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국회 수정 통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안 국회 통과. 공급가액 1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60%를 유지하되 1억원~2억원은 50%에서 55%로, 2억원 초과는 30%에서 45%로 상향 조정
소득세법 개정안	종교인 과세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 법제화,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중 무산돼 국회 통과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제외
지방세법 개정안	카지노 레저세 과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카지노 매출의 10% 과세안 상정 논의 내년으로 유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재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飛翔하려던 정부 '非常'
〈비상〉 〈비상〉
내년 성장률 전망 내릴까

세수부족 우려…중기재정계획 다시 짤 판

세수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기존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4.0%)을 유지하려면 그에 따른 세수부족이 걱정스럽고 성장률을 수정하자니 세입전망을 통째로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수추계의 근거로 삼는 경제지표는 실질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기준)을 합친 경상성장률 개념이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 경상성장률 6.1%를 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실질경제성장률 4.0%와 소비자물가 수준 2.1%가 더해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7%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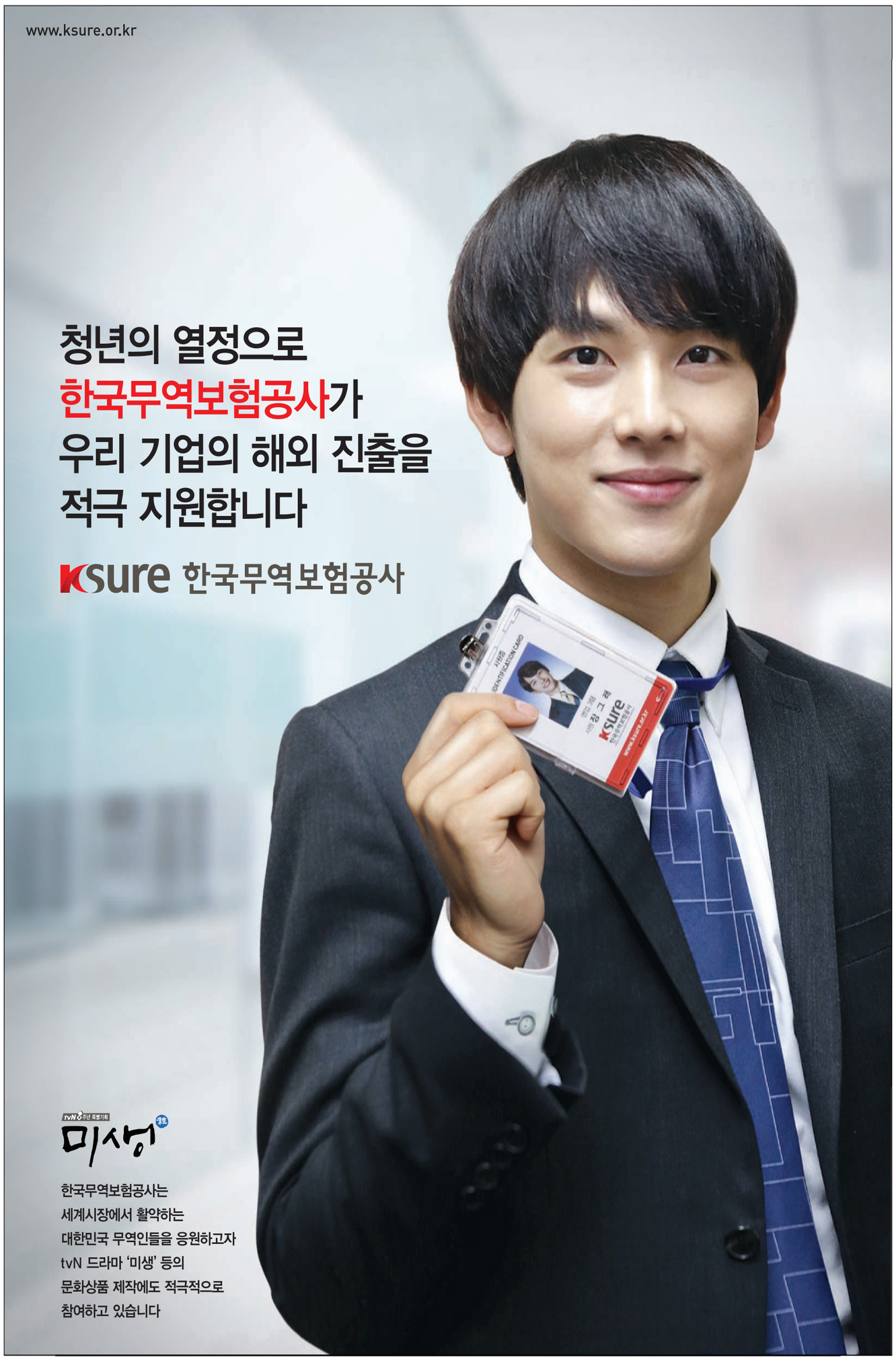
문제는 실질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물가 수준이 낮으면 세수에 구멍이 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상황을 보면 정부의 성장률 전망과 실제 성장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2009년~2013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의 평균오차는 평균 2.2% 포인트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절반씩 틀린 셈이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의 세수 예측치와 실적치는 평균 4조70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2012년에는 세수가 2조7000억원 부족했고, 지난해에는 8조5000억원이나 모자랐다.

올해의 성장률도 정부의 예측범위를 벗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3.9%로 보고 국세로 216조5000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예상이 맞으려면 우리 경제가 경상성장률로 6.5%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세수 부족이 1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부족에 대비해 불용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더욱이 내년은 올해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펑크 규모도 규모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지출을 올해보다 20조원 넘게 늘린 대규모 적자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내후년인 2016년부터는 다시 세입이 해마다 6% 이상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중기재정계획을 짜 놓았다.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이 4%대로 올라가면 이듬해 세수가 늘어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망이 틀리면 또 다시 세수펑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내년에도 성장률 4%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세수전망이 반복적으로 어긋남에 따라 상반기 재정지출을 늘리고(확장) 하반기 세출감액을 하는(긴축) 식으로 주먹구구식 재정운용이 반복되면서 경제에 역효과를 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경기구조 변화를 감안한 세입과 세출 구조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초고령화로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결코 과거처럼 고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계속 낮은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줄어든 세입에 맞는 세출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문만 열어놓은 '저출산고령화사회委'

〈대통령직속위원회〉

朴정부 출범후 야심차게 추진
위원회 소집 단 한 번도 없어
세부지침 서면 심의 2회 그쳐
14개 부처 협업없이 방치 상태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현황

소속	예산	지원단	회의 개최 횟수	주무부처 관련부서
대통령직속	1억2000만원	5명 내외, 현재 지원단장 공석	서면심의안 2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담당과장 공석)

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위원회 소집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민관 합동 정부기구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조차 없는 등 방치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 이 정책을 담당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장 자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라 사실상 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된 데 이어 2012년 5월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돌아왔지만 사실상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이 위원회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해 1월 딱 한 차례뿐이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세부지침 처리를 위해 서면 심의만 두 차례 있었던 게 전부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를 지원해야 할 복지부 저출산 고령지원단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현재 단장은 공석이고,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계약직 직원 1명 등이 업무를 맡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위원회에 올해 책정된 예산은 1억2000만원가량으로 인건비 7000만원과 연구용역비 5000만원 등에 전부 쓰인다. 여기에 최근 인구정책과장 자리도 공석이 되면서 사실상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맡아 하는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무려 14개 부처가 이 대책에 관여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별로 협업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싱글세, 국민연금 기금투자 방식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 부추겨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미혼 남녀에게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싱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비난받은 바 있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국민연금기금의 임대주택 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이상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간과하지 말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기습한파에 한강도 '꽁꽁'



때이른 기습한파가 절정에 달한 5일 서울 자양동 뚝섬한강공원 부근에 고드름이 얼어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한자리에 모인 2012 대선캠프 주역들



지난 2012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4일 오후 서울 통의동 한 식당에서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과 김호기 연세대 교수, 장하성 고려대 교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가 모임을 가진 뒤 식당을 나서고 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이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공적자금 회수율 63.7%

3분기 기업銀 매각대금 등

3분기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회수율이 63.7%를 기록했다.

5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올해 3분기 229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수율은 63.7%로 전년말(63.4%)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회수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제주은행 주식매각(226억원)과 파산배당(3억원), 정부의 기업은행 주식매각(2067억원)으로 구성됐다.

공자위 관계자는 "지난 6월 팔린 경남·광주은행 매각대금 1조7000억원은 10월에 회수됐기 때문에 이번 3분기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조성된 구조조정기금은 3분기 3836억원이 회수됐다. 부실채권 정리(1143억원) 및 출자배당금 회수(269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구조조정기금은 200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6조1693억원 지원됐다. 이 가운데 5조4436억원을 회수, 회수율이 88.2%에 달하고 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기간제 근로' 당사자 동의 땐 3년으로 연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규직 일반해고 완화 추진
고용 유연화 정책 진행 시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 조정의 요건과 기준이 불명확해 노사 갈등을 낳고 있다"며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현저하게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라도 전환 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 룰(rule)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규직을 지금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 유연화 정책이 예상대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파견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관련 규제도 손질할 방침임을 재차 언급했다.

이 장관은 "파견이나 기간제 사용에 대한 규제도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실질적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년 기간제 근로자들은 법의 기간 제한과 상관없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당사자 동의 등 일정한 보완장치와 연계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당사자 동의와 금전 보상 등을 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이 장관은 정규직 전환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차례에 나눠 근로계약을 하는 '쪼개기 계약'과 관련해 "퇴직급여 지급을 피하기 위한 단기 계약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감사원, 최근 6년 무기·장비 연구개발 참여업체 '특감'

'방산비리' 뿌리 뽑힐까

감사원은 최근 6년간 무기와 장비 연구개발(R&D)에 참여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특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은 검찰, 경찰과 국방부 등 유관 기관 인원 33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감단은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그동안의 감사와 달리 사실상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최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공문을 보내 특감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여년간 연구개발비의 집행 과정에서 비리나 부실집행이 있었는지 집중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비리 첩보를 입수하면 기간 제약 없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혐의를 포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잇따른 방산비리로 체면을 구긴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지시했다.

지난 1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있는 군 관계자들에게 "일체의 간섭 없이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동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장(고양지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령급 국방부 파견 팀장이 합수단 지침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직접 서면으로 수사 지원 의사를 작성해 전파했다"고 밝혔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정재찬 "대기업 총수 연봉 공개 필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정재찬〈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4일 "대기업 총수 연봉 공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는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찬성 뜻을 표했다.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1일까지 등기임원 개개인의 연봉(연봉 5억원 초과)을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집단(재벌)의 총수일가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등 연봉 공개 회피의 수단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이 후퇴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총수일가가 연봉 공개와 기업 책임을 회피하고자 등기이사로 등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금산분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의혹 조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사항인 만큼 최대한 빨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해 "입찰제도는 기획재정부나 조달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구조적으로 담합을 조장하는 것이 가급적 덜 생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금주의 법안

면세담배 → 영세담배 꼼수
새정치 'KT&G 방지법'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 오전 현재까지 의원입법 76개, 정부입법 12개 등 총 88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KT&G 방지법'이 눈에 띈다.

KT&G는 지난 201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면세율을 적용받는 외항선원용 담배를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용 담배로 무단용도 변경·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KT&G의 위법판매 규모는 600여억원에 달했으나 부과한 과태료는 고작 200만원(현행법상 최고)에 불과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법규 위반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 때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토록 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서울시, 환지방식 취소… '전면 수용·사용방식' 채택

"구룡마을 개발 연내 재개"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연내 재개된다.

5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께 강남구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 정식으로 합의한 다음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재개를 알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고 강남구가 주장하는 대로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년째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2011년 서울시가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으나 2012년 서울시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반발했다.

서울시는 환지방식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과 거주민, 가구주 등이 함께 논의하는 개발방식을 내세웠지만 강남구는 시가 일방적으로 환지방식 도입을 결정한 데다 토지주들이 특혜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수년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구룡마을은 지난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구룡마을의 열악한 환경 탓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고 다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개발사업 재개 필요성에 뜻을 모으게 됐다.

박 시장과 신 구청장은 지난달 화재 현장에서 만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발을 재개하는 데 공감한 바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해썹과 수산물이력제로 우리수산물 '안전 확보'

"소비자와 더 깊은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양식장 해썹제도의 가장 큰 이점이다."

강원도 영월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해썹)인증 양식장을 운영하는 오영택 한국송어양식협회장은 "해썹으로 안전하게 관리된 송어를 바로 눈앞에서 잡아 싱싱하게 맛볼 수 있다는 점이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끌고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해썹 인증을 통해 맛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신뢰까지 소비자들에게 준다는 것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안전관리제도 또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들에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수산물 이력제와 해썹을 추진하고 있다.

해썹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출하의 모든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위해물이 들어가거나 잔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생산·출하 전 단계 수산물의 기준을 마련, 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해썹 인증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해 양식장 해썹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

화이자 '건보 불법로비' 심평원은 몰랐다

약제급여평가위원에 문자보내 폐암치료제 '잴코리' 언급
건보 급여 신청 연이어 탈락하자 시도… 위원 명단 유출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 제품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에게 불법 로비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정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 4일 진행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뒤늦게 화이자의 잴코리 약을 상정 안건에서 제외시켰지만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 따르면 화이자제약은 지난 1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참여 위원에 폐암 치료제 '잴코리'에 대한 불법 로비 의혹 문자를 보냈다.

화이자제약 직원 이름으로 보내진 이 문자에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폐사의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련하여 찾아뵙고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귀한 시간 내주시면 잠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기구다. 13차 급평위는 이날 열릴 예정으로 화이자의 잴코리도 상정된 상태였다. 잴코리는 2011년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후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급여 신청을 했지만 계속 건강보험 대상에서 탈락했다.

위원회는 50여명으로 꾸려진 인력풀 가운데 회당 20명 내외로 구성돼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2주일 전에야 참석 의원이 결정되고 회의 안건은 1주일 전에 전달되며 철저히 대외비로 열린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화이자제약이 해당 회차 참석위원을 정확히 알고 로비를 시도했다면 누군가가 명단을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국민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심평원은 논란이 된 해당 약제를 급평위 심사에서 제외하고, 화이자의 로비를 위한 명단 유출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와 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더 심각한 것은 로비 시도 의혹에 대해 심평원 측이 급평위가 진행되는 1일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로비 시도 정황을 알았다"며 "화이자의 잴코리캡슐과 관련해 위원명단 외부 유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금번 급평위에 해당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대입정보박람회 "줄을 서시오"



'201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길에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대학입학정보박람회는 오는 7일까지 열리며 수도권 주요 대학을 비롯해 지역별 거점대학 등을 포함한 전국 130개 대학이 참가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野 "운영위서 '문고리 3인방' 검증"

與 회의 거부… "수사 지켜보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파장이 정치권을 덮치면서, 연말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야당은 의혹 검증을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관계자들의 소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의 관계 규명을 위해 청와대 인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갖자고 5일 회의를 단독소집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반쪽짜리 회의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내일 국회운영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새정치연합은 정윤회씨가 대한승마협회 감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종 문체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명과 진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문위 야당 관계자는 "김종 2차관의 상임위 출석은 당연한 것"이라며 "문체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회의 역시 거부할 분위기다.

당 내부에서도 비박인사를 중심으로 비선인사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선을 긋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박 경정, 문건작성 인정… 유출은 부인

조응천 전 비서관 오늘 조사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소환된 박관천 경정을 상대로 19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벌였다. 박 경정은 문건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의 박 경정 컴퓨터에서 지난 2일 일부 파일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 파일을 삭제한 이는 박 경정의 부하직원이다. 검찰은 이 파일을 복원해 박 경정이 부하직원을 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 경정의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지워진 파일이 일반 정책자료일 뿐, 유출 문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대통령 측근 친인척 자료를 일반 공무원 감찰 자료와 따로 분류해 보관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홍경식 민정수석을 조사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좌영길 기자 jyg97@

'아이폰6 대란' 이통3사 과징금 8억

방통위 제재… 영업점엔 최고 150만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각각 8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단속 대상인 일선 영업점에도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키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보조금 대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이 의결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지원금이 적발된 이통사는 위반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 건수가 540건에 불과하고,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정액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제재기준을 적용해 8억원이 책정됐다.

최 위원장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촉발한 주도 사업자가 있을 수 있지만, A사가 30만원을 지급하면 B사는 40만원을, C사는 50만원을 주는 구조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 사업자에게만 더 높은 제재를 가하기에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크고 작다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 3사의 22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10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통점의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방통위의 판단에 따라 50%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다.

박성제 기자 psj@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
from LH



복권위원회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 행복한 미래!

LH 전세임대주택이 대한민국 무주택서민과 함께 합니다.

국토교통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 사업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공급호수 · 사업대상지역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15,620호	3,000호
공급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제천, 아산,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보령, 군산, 익산, 전주, 정읍,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밀양, 사천, 통영, (제주, 서귀포) ※1)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지역 중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안산, 용인 지역은 경기도시공사, 하남 지역은 하남도시공사, 부산진구, 해운대구는 부산도시공사, 대구 북구, 중구는 대구도시공사가 시행 2) 제주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공급(기시행)	
지원한도액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순위 접수)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①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요건 제외)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3인 이하 가구 - 2,303,100원, 4인가구 - 2,551,400원, 5인 이상 가구 - 2,678,720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인 이하 가구 - 4,606,216원, 4인가구 - 5,102,802원, 5인 이상 가구 - 5,357,446원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4. 12.5 기준)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기간, 당해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여부,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 3순위 접수)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3인 이하 가구 - 2,303,100원, 4인 가구 - 2,551,400원, 5인 이상 가구 - 2,678,720원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5) 현재 혼인 3년 이내(2011.12.6 ~ 2014.12.5 사이에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5) 현재 혼인 5년 이내(2009.12.6 ~ 2014.12.5 사이에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5) 현재 혼인 5년 이내(2009.12.6 ~ 2014.12.5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4.12.5 기준)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자녀의 수, 세대주의 나이, 청약저축 가입여부,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기간, 당해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여부, 직계존속 부양여부 등)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14.12.17(수) ~ 12.23(화)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단, 토 · 일요일은 신청 접수받지 않음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입주절차
입주 신청(주민센터 방문접수) ⇨ 입주자 자격 검사 및 선정 통보(지자체 → LH)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입주자)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4.12.5)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비고
공통준비사항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② 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③ 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4.12. 5. (발급관리번호 : 2014980110) ※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신혼부부	①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② 해당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입주자격 확인
○입주대상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LH로 통보
1) 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 (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2) 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① 상시근로소득, ② 일용근로소득, ③ 자활근로소득, ④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⑤ 농업소득, ⑥ 임업소득, ⑦ 어업소득, ⑧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⑨ 임대소득, ⑩ 이자소득, ⑪ 연금소득
기타소득	⑫ 공적이전소득

■ 입주대상자 발표
○일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장소 :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시·군·자치구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 지역본부별로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기타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전세임대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지역별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별로 별도 안내예정)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와 나·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나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여 해당 시·군·구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우선공급(공급량의 2%)을 통보한 자는 입주신청기간에 거주지 주민센터로 입주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우선공급물량은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LH 홈페이지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공급 |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시·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운영기관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공급 |
○ 공급목적 :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공급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공급호수 : 1,000호
○ 지원한도 :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 임대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 부담,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이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본 공고문은 입주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LH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5.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콜센터 1600-1004 |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세계는 지금 '저탄소 전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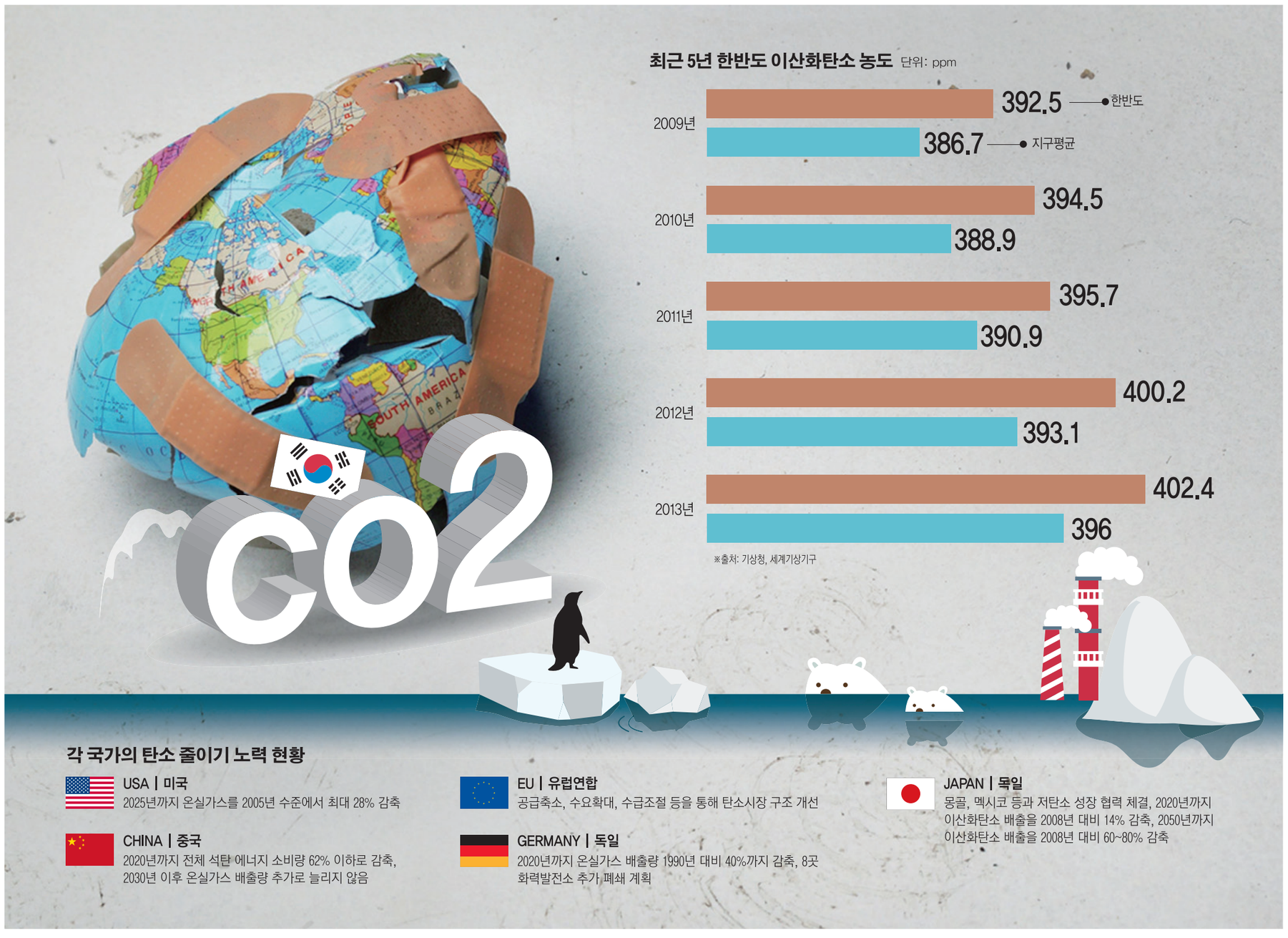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이투데이·환경재단 350 캠페인

후원 :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국회 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위

<시리즈 순서>

① 텀블러 이용실태 조사
② 대한민국은 '종이컵 천국'
③ 일회용컵을 안써야 하는 이유
④ '친환경 경영'이 뜬다
⑤ 일회용컵 없이 생활하기
⑥ 종이컵의 죽음과 환생
⑦ 특명 "탄소배출량을 줄여라"
⑧ 일회용컵 사용 절감 제언



이산화탄소의 지구 대기 속 농도가 400ppm에 육박하면서 온실 가스 감축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감축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던 미국과 중국이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9월 지난해 전 지구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396ppm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12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393.1ppm였던 것에 비해 불과 1년 사이에 2.9ppm 증가한 것이다.기상청은 최근 들어 이산화탄소 증가량의 폭이 커진 것을 고려하면 2014~15년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 평균이 400ppm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지난 2012년 400.2ppm, 2013년에는 402.4ppm으로 관측된 바 있다.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2일(현지시간) 195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페루 수도 리마에서 12일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사진은 페루 후아스카란 국립공립 안에 있는 빙하 호수의 모습. 이곳 빙하는 지구온난화로 지난 30년간 5분의 1 이상 감소했다. AP/연합뉴스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도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온의 폭발적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을 산업화 이전 지구의 평균 기온과 비교해 2도 상승으로 보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 억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중국 정상, 온실가스 감축 전격 합의 = 이처럼 지구 온난화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었던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배출 통제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수준에서 최대 28% 줄이고 중국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가로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비 화석연료 비중을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20%까지 높이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중국은 '에너지발전전략 실행계획'을 세워 오는 2020년까지 석탄 에너지 소비 비중을 62%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에 나서고 있다. EU는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에 맞춰 탄소시장을 최초로 설립한 바 있다. 전체 탄소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차지하는 EU는 탄소 배출권 거래량은 늘었지만 거래액은 급감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악화로 탄소배출량이 많이 줄어들며 배출권 공급이 급증해 탄소시장의 공급과잉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EU에서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은 2011년 상반기만 해도 1톤당 가격이 16유로를 넘었지만 경기 침체로 50% 이상 가격이 낮아졌다. 이에 EU는 배출권 공급 축소와 수요 확대, 수급 조절 등의 3가지 방향으로 탄소시장의 구조 개선과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평균 CO_2 농도 400ppm 육박…한국은 이미 넘어서

지구온난화 가속…탄소 배출량 줄이기 팔걷어

美·中정상 APEC서 온실가스 감축 전격 합의

EU도 탄소시장 구조개선·공급과잉 해소 나서

일본은 몽골 등 12개국과 저탄소성장 협력 체결

특히 독일은 EU 내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까지 줄이기로 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8곳의 화력발전소를 추가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도 꾸준히 늘려 2010년 16.4%에서 2011년 20.3%, 2012년 21.9%, 2013년 23.4%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앞서 독일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3.6% 감축해 교토의정서에 따른 21% 감축 의무를 초과 달성했다.

◇일본, 12개 국가와 저탄소 성장 협력 맺어 = 일본도 다른 국가들과 저탄소 성장 협력을 맺는 방식으로 탄소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일본과 멕시코는 저탄소 성장 협력을 위해 양국 간 배출권 제도를 창설하고, 제도 운용을 위해 합동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배출권 제도는 일본의 저탄소기술과 제품 이전을 통해 상대국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흡수를, 일본의 공헌 분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은 몽골을 시작으로 멕시코를 포함해 그동안 12개 국가와 저탄소 성장 협력을 맺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08년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를 앞두고 기후 변화에 대한 입장을 담은 '후쿠다 비전'을 제시했다. 후쿠다 비전을 통해 일본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8년 대비 60~80% 감축하고, 202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8년 대비 14%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은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산업과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한층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이 연간 소비하는 1차 에너지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수지를 제로로 만드는 제로에너지빌딩(ZEB;Zero Energy Building)을 2020년까지 신축 건물 기준,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가장 효율이 높은 기기를 기준으로 각 사업자에게 기한 내에 높은 수준으로의 효율 개선을 유도하는 '톱 러너(Top Runner)'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저탄소화가 신성장동력이다" 글로벌 기업들, 에너지 기술로 산업혁신

닛산차 공장 지붕 태양광 사업자에 임대

도시바, 동남아·중동 전력시스템 무상제공

셸, 네덜란드 공장 배출 CO_2 비료로 전환

지멘스, 런던 하이브리드 버스로 수익창출



정부의 저탄소 정책을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 있다.

닛산자동차는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80%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캐나다의 태양광발전 기업과 협력해 자회사 닛산자체규슈(九州)의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계약을 체결했다. 자사 공장의 지붕을 태양광 사업자에게 임대해 주는 것으로 투자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 전력 생산과 임대료 수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닛산은 이 계약으로 연간 발전량 213만kWh을 절약해 연간 3만5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도시바는 올해부터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빌딩과 상업 시설에 전력 소비를 줄이는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도시바는 이를 통해 녹색산업의 경쟁력과 탄소배출권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정유업체인 셸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화훼농업에 필요한 비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공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600만톤의 이산화탄소는 네덜란드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한다. 이 중 셸은 매년 30만~40만톤을 포집해 재활용한다.

특히 셸은 친환경 석탄발전기술인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IGCC는 석탄을 고온·고압으로 일산화탄소(CO), 수소(H2)가 주성분인 가스를 제조한 후 가스와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기술이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규제가 현실화되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이 상업화되는 2020년 전후로 IGCC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계 기업 지멘스는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업 모델화했다. 세계 대도시들이 '그린시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도시 녹색성장 전략을 활용해 이익을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멘스는 중국 베이징에서 폐수처리 시스템 혁신 사업과 영국 런던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에 나섰다. 전기구동기술을 적용한 이 하이브리드 버스는 기존 디젤 버스보다 배기가스가 40% 적게 배출되고, 연료는 30% 적게 드는 친환경 차량이다. 지멘스는 이 버스를 런던을 대표하는 2층 버스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멘스는 앞으로도 도시를 위협하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수질, 에너지 비효율성을 개선해 친환경 도시 건설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해외 기업들이 이처럼 발 빠르게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산업혁신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도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우리 산업계도 새로운 에너지 체계에 대비해 소재 및 부품 등 기반기술을 포함한 혁신 기술의 개발,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8097호 (2014.12.03 ~ 2015.12.02)
Stay Ahead는 고객을 위해 늘 한 발 앞서 있겠다는 삼성자산운용의 의지입니다

Stay Ahead™

중국투자의 大路가 열렸다!
준비된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나가십시오



후강통으로 더욱 뜨거워진 중국시장! 지속적인 투자와 준비로 중국시장을 리드해온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하십시오.
국내 운용사 중 최대 중국본토 A주 투자(QFII)는 물론 본사, 홍콩 현지법인, 상해 리서치센터를 통한 전문 운용 체제!
투자 성향별 맞춤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중국 펀드 라인업까지! 중국 투자는 단연 삼성 펀드입니다.

중국 본토투자 (본토 A주 중심)	삼성 China2.0 본토 증권 펀드[주식] 삼성 중국본토 중소형 Focus 증권 펀드[주식] 삼성 중국본토 레버리지 증권 펀드[주식-파생재간접형]
중화권 투자 (중국, 홍콩, 대만 등)	삼성 차이나 증권 펀드[주식] 삼성 누버거버먼 차이나 증권 펀드[주식-재간접형] 삼성 차이나 컨슈머 증권 펀드[주식]
중국 투자 ETF	KODEX FTSE China A50 ETF KODEX China H 레버리지(H)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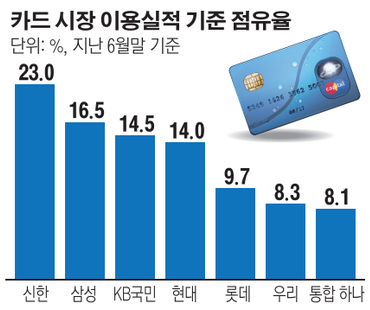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방문 또는 콜센터 080-377-4777에 문의하시면 삼성자산운용의 다양한 중국 펀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및 A주 과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투자시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으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SAMSUNG

‘하나’ 가세… 전업카드사 영토전쟁 후끈

1위 신한… 삼성·국민·현대 맹추격
하나SK·외환 통합 ‘하나’ 7위 도약



신용카드사들의 영토전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가 합쳐진 ‘하나카드’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하면서 시장 확대를 위한 무한경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통합 하나카드 출범으로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된다. 하나카드는 이번 통합으로 지난 6월말 기준 업계 점유율(이용실적 기준)이 8.1%가 돼 7위권 카드사로 도약했다.

하나카드는 10년 내 연매출 140조원, 시장점유율 15%의 톱 카드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밝힌 상태다. 국내 카드사들은 영업구조가 유사하고 업체간 상품 차별화 수준이 낮아 고객기반 확보와 규모의 경제 여부가 핵심 경쟁력이다.

현재 카드업계는 신한카드가 23% 시장점유율로 안정적 1위를 지키고 있다. 삼성·KB국민·현대카드의 추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신한카드 고위 관계자는 “2등의 거친 숨소리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실적을 제외하면 삼성카드가 2위지만, 전체 규모는 은행계인 KB국민카드가 2위로 올라선다.

시장점유율 한 자릿수 대의 중위권은 혼전 양상이다. 롯데카드의 점유율은 9.7%로 두 자릿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우리카드는 8%대로 전략상품 ‘가나다 카드’가 흥행에 성공하며 무서운 추격을 하고 있다. 하나카드가 등장하면서 중위권 순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체크카드 사용이 늘고 있어 하나·외환은행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하나카드가 체크카드를 무기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성공한다고 가정하면 우리카드의 향방에 따라 업계의 경쟁구도 재편이 불가피하다. 통상 카드업계에서는 시장점유율 1%를 끌어올리기 위해 약 10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박엘리 기자 ellee@

2014 금융사 CEO 성적표 ④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통합산은 출범 눈앞… 정책금융 선도



합병위원회 설치하며 전사적 노력
부실 징후땐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통일금융 확충위해 금융 외교 집중
대기업 부실에 올해도 적자 예상

홍기택(사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올해 바쁜 한해를 보냈다.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STX그룹 구조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다. 또 정책금융공사와의 합병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여기에 통일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확충 일환으로 해외 금융기관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금융외교 활동에도 집중했다.

그러나 수익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요인은 홍 회장에게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올해는 동부그룹의 대규모 부실 탓에 올해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다.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총자본비율도 12%로 떨어진다. 세월호 부실 대출과 관련해서는 한바탕 홍역을 겪었다.

통합 산업은행 출범이 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 회장은 막바지 점검에 여념이 없다. 앞서 그는 “통합산은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성공하려면 임직원 간 화학적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과거 산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하던 업무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21세기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자는 의미다.

이를 위해 합병위원회을 출범시키고 통합추진단과 운영협의회 설치, 합병을 위한 실사 등 통합 준비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영지원 분야를 미리 통합했으며 통일금융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연구·조사에도 나섰다.

홍 회장은 올해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는 예년과 달리 ‘선제적·상시적’구조조정을 앞세우며 정책금융 맏형으로 기업구조조정 의지를 피력해 왔다.

홍 회장의 대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였다. 부실 징후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부실 대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안전판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산업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익 증대도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홍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산업은행은 13년 만에 1조4500억원의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기업 부실 때문이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부그룹에 총 1조9000억원의 여신이 잡혀 있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홍 회장은 또 세월호 구입·개조자금 대출 의혹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안철우 기자 acw@





하나금융그룹은 4일 중국 내 최대 민간투자회사인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와 포괄적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 제휴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왼쪽 두번째)과 중국 베이징에서 동문표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 동사장(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나·외환은행 中 통합법인 내주 문연다

김정태 회장 지난 3~4일 베이징 방문
印尼 등 해외통합…국내도 탄력 전망
경영권 중국인에게 맡겨 현지화 강화

하나·외환은행 중국 통합법인이 내주 출범한다. 이로써 인도네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해외법인 통합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해외 법인통합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 은행의 통합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외환은행 중국 통합법인이 내주 중국 금융당국으로 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막바지 조율을 진행했다. 특히 김 회장은 중국내 최대 민간투자회사인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와 업무제휴(MOU)를 맺는 등 해외 현지법인과 영업점의 영업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작업도 마쳤다.

하나금융은 올 초부터 중국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당초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중국 법인은 지난 10월 중국 당국의 예비인가에 맞춰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12월 중으로 미뤄졌다.

하나금융은 중국 통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중국인에게 맡겨 현지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인 동사장(이사회 의장)이 중국계 기업 대상 영업 등을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1일 통합 하나카드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되면 실질적인 경영은 중국인에게 맡길 것”이라며“이 과정에서 현지화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법인통합으로 위안화 영업을 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그렇지 못한 외환은행 간 시너지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중국 시장이 확대되면 오는 2015년과 2016년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이익이 3000~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중국 통합법인 출범으로 국내 은행의 조기 통합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 kimmj@

정부, 기업銀 지분 또 매각 “이번이 마지막”

3.8% 블록딜… 3000억 현금 확보

기획재정부가 연말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은행 보유지분 3.8%에 대한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에 나섰다.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 이지만 정부가 51% 지분 유지 방침인 만큼 추가적인 매각은 없을 전망이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전일 기재부는 장 종료 직후 보유지분 2100만주(3.8%)에 대한 블록딜을 실시했다.주당 가격은 1만 4400원에서 1만 4800원으로 이날 종가(1만5150원)대비 2.3%에서 5.0% 할인율이 적용됐다.

이번 블록딜로 정부는 3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됐다. 매각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JP모간, 메릴린치증권이며, 매매결제일은 오는 9일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기업은행 보유지분 5.06%를 매각해 지분율이 종전 60%에서 55%로 떨어졌다. 이번 블록딜은 연초 이미 기재부 예산안에 명시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이번 블록딜로 정부 지분의 기업은행 지분 보유율은 51% 수준에 맞춰지게 된다”며 “경영권을 방어하는 최소 상한선인 50% 초반에 지분율이 맞춰진 만큼 당분간 더 이상 나올 블록딜 지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특급대우' 삼성의 별…신분은 '계약직'

신규 선임 임원, 무엇이 달라지나

평균 연봉 1억5000만~2억원 수준으로 올라

법인용 고급 차량부터 가족 의료서비스까지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의 임원인사가 4일 실시됐다. 삼성은 다음주 중 계열사별 조직개편 및 보직인사를 통해 내년 인력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00명 가운데 1명만이 달수 있다는 기업의 '별'인 임원이 되면 파격적인 대우가 뒤따른다. 그 중에서도 재계 1위인 삼성의 임원이 되면 필기구, PC, 책상, 의자 등 업무용 집기부터 외부 활동을 지원하는 법인용 차량까지 많은 것이 달라진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연봉과 신분이다. 삼성 신임 임원(상무급)의 평균 연봉은 1억5000만~2억원 수준이다.

삼성은 계열사별로 직원들의 연봉이 다르다. 금융·전자 계열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연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삼성의 신임 임원은 퇴직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임금 수준을 거의 동등하게 맞춘다. 따라서 신임 임원이 금융 계열사 말년 부장의 연봉보다 적은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연봉이 크게 올라가는 대신 신분은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으로 바뀐다. 삼성 임원 평균 재임기간이 3년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는 전언이다.

임원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법인차량도 즉시 지원된다. 삼성 임원의 법인차량은 직급에 따라 배기량과 차종이 다르다. 상무급은 배기량 3000cc 이하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와 '아슬란', 기아차의 'K7', 르노삼성 'SM7'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전무급 이상부터는 운전기사가 배정된다.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전무급은 3000cc 이상의 현대차 '제네시스'와 기아차 'K9'이, 부사장급은 3800cc 이상의 '에쿠스380'이 지원된다. 사장급은 5000cc 이상의 '에쿠스500', 부회장급은 '벤츠 S600', 'BMW 7', '아우디 A8' 등 수입차를 타기도 한다. 법인차량뿐만 아니라 유류비, 보험료도 지급된다. 이번에 승진한 신임 상무들은 다음 주부터 법인차량 지원이 시작된다.

삼성 신임 임원들은 내년 1월 초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4박 5일 동안 교육을 받는다. 교육의 마지막날인 금요일에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부부동반 만찬이 이어진다. 만찬 후에는 부부가 신라호텔에서 숙박(1박)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임원용 법인카드가 지급되며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말 골프장 이용권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삼성의료원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건강진단과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이건희 회장은 매년 초 임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며 자신의 명의로 신임 상무들에게 고가의 스위스 시계를 선물한 바 있다. 올해는 이 회장이 와병 중이어서 참석이 어려운 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토마스 앤더슨 볼보 부사장

"한국에 중장기 투자 강화"

내년부터 신차 출시 확대

경쟁사와 차별화로 승부

'서울모터스' 참가 안할 것



볼보자동차가 국내 수입차 시장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강화한다. 또 차별화를 통해 경쟁사들과 다른 방식으로 고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토마스 앤더슨(사진) 볼보자동차 부사장은 4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투자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볼보자동차가 투자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신 모델 출시와 고객만족 극대화다. 이를 위해 국내 소비자 성향을 고려한 연비와 파워를 높인 모델을 출시하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토마스 앤더슨 부사장은 "2016년 '올 뉴 XC90'과 플래그십 세단 'S90'을 출시하는 등 새로운 모델들을 대거 출시할 계획"이라며 "젊고 역동적인 고객을 위주로 판매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XC90은 7인승 SUV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볼보 자동차다. 올 뉴 XC90 출시를 통해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장 내년에는 'V40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출시한다. V40 크로스컨트리는 지난 11월 LA모터쇼에서 공개됐으며 '2.5리터 T5'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254마력의 최고 출력을 자랑한다.

토마스 앤더슨 부사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플랫폼과 엔진, 디자인을 적용해 새로운 모델을 대거 출시하겠다"며 "5년 뒤에는 아직 출시하지 않은 올 뉴 XC90이 가장 오래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보자동차는 또 경쟁사와 차별화를 둔 '볼보웨이'를 토대로 국내 점유율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수입차들과 다른 행보를 걷겠다는 것. 일례로 볼보자동차는 내년 열리는 '서울 모터쇼'에 불참을 선언했다. 토마스 앤더슨 부사장은 "기존 모터쇼는 업체들이 자동차를 전시하고 고객들이 오도록 하는것"이라며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모터쇼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김범근 기자 nova@

포스코ICT ESS 시험센터

연간 144MW 제작…국내 최대 규모

포스코ICT가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시험센터를 완공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부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ESS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시험센터는 전용면적 2215㎡로 대용량 ESS 테스트와 제작 장비·설비를 갖췄으며, 총 3개 라인으로 구성됐다. 1개 라인당 최대 1~4MW급까지 시험과 제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연간 최대 144MW까지 시험·제작이 가능하다. 1MW는 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또한 전력변환장치(PCS)와 배터리간 충·방전 시험, 전력제어 시험 등은 물론 풍력·태양광 발전기와 ESS 연동 등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 성능 시험도 가능하다. 고객 요구에 따라 풍력·태양광 발전기와 ESS의 연동, 리튬이온 전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에 대한 성능도 시험할 수 있다.

포스코ICT는 이번 시험센터 가동으로 설비 출하 전 통합시험 단계에서 종종 발생했던 오류 문제를 해결해 제품 신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SS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발전소와 연계해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김정유 기자 thec98@



4년 연속 무역1조 달러를 달성한 '제51회 무역의 날'을 하루 앞 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1조 달러 탑 앞에서 한국무역협회 임직원을 비롯한 홍보대사들이 '창조경제로 도약하는 글로벌 무역강국' 카트섹션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역대 최고 750억불 '수출탑'

51주년 '무역의 날'

1481개 업체·742명 유공자

한상범 등 5명에 '금탑훈장'

삼성전자가 750억불 탑을 수상하며 '수출의 탑'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등 산업 유공자에게 금탑산업훈장도 수여됐다.

▶관련기사 14면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유공자, 정부·유관기관장 등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1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1481개사에 '수출의 탑'이, 무역 유공자 742명에게 훈장이 수여됐다.

이 중 삼성전자는 750억불 탑을 수상, 2011년 같은 회사가 세운 650억불 탑을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2001년 200억불 탑을 달성한 이후 올해까지 4차례 수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가 100억불 탑을, LG이노텍은 50억불 탑을, 현대제철은 40억불 탑을 수상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올해 1억불 이상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업체는 95개사다.

산업 유공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수상자에는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조순태 녹십자 사장, 양진석 호원 대표이사, 강신영 흥아기연 대표이사 등 5명이 선정됐다.

강문철 일진 대표이사 등 5명은 은탑산업훈장, 주재동 케이씨텍 대표이사 등 9명은 동탑산업훈장, 박은관 시몬느 대표이사 등 10명은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 김현철 디에스알제강 부사장 등 34명은 산업포장을, 윤경희 서보산업 이사 등 79명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742명에 대해 정부 포상이 이뤄지며,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받는 80명까지 포함한 올해 전체 포상자는 822명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미래부, 스마트미디어 육성 4500억원 투입

글로벌 미디어벤처 지원 등… "시장 규모 5배 성장"

정부가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6년간 4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장 규모를 5배 늘리고, 일자리 역시 6배 가량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4개의 부처는 이번 계획 비전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미디어 강국 실현'으로 삼고 △글로벌 미디어벤처 육성 △이머징 미디어 성장 기반 강화 △미디어 인프라 연구개발(R&D) 선도적 추진 △미디어 생태계의 상생·개방화 △융합산업에 대한 제도화 방향 마련 등 5대 전략과 함께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1494억원을 들여 글로벌 미디어벤처를 육성한다. 이를 통해 1인·중소벤처 등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개발→상용화·유통단계'에 이르는 창업 전체 주기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현지거점 구축 등 강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창의인재를 양성해 창업을 위한 인적자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스마트광고, 디지털사이니지, 실감미디어 등 다양한 이머징 미디어 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디지털 헤리티지, 스마트미디어 체험관 등을 구축해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내년부터 6년간 1418억원을 투자해 스마트미디어 5대 기반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업과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마트미디어 산업진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도 제거한다. 특히 디지털사이니지 등 과도한 규제로 투자가 확대가 어려운 분야는 진흥법 제정 등 진흥위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만두·돈까스… 냉동식품 값 '껑충'

"돼지고기값 올라 인상 불가피"

CJ제일제당, 평균 6.5% 올려

다른 기업들도 가격인상 채비

올해 돼지고기값 폭등으로 햄에 이어 냉동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른다. 소비심리 악화와 경기불황으로 올해 식품업계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가공식품 가격인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4일 CJ제일제당은 만두 등 냉동제품 가격을 12월 30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평균 인상률은 6.5%로, 대표 품목인 냉동 육가공은 7.1%, 만두는 5.9% 수준이다.

회사 측은 이번 가격인상이 국내 돼지 유행성설사병 영향으로 올해 초부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한 데 이어, 비수기인 겨울시즌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지속되며 원가압박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냉동 육가공과 만두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뒷다리살 공급물량 감소로 제조 원가 부담이 심각하다"며 "원료육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실제로는 19%가 넘는 인상이 불가피 하지만 인상률을 각각 7%대, 5%대 수준으로 제한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냉동 육가공과 만두 가격인상은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냉동 육가공이나 만두에 사용되는 국내산 원료육(뒷다리살) 시세는 지난해 대비 66.4% 상승된 1kg당 4909원에 형성돼 있다.

식품업계 선두인 CJ제일제당이 가격인상의 신호탄을 쏘면서 다른 식품기업들도 가격인상에 나설 채비를 갖출 것으로 점쳐진다. 먼저 냉동식품의 경우 동원F&B가 돈가스를 제외한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햄 가격을 가장 먼저 올렸던 롯데푸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 라면이다. 1위 업체인 농심은 밀가루 값 인상 등 라면 가격의 상승 요인이 많았지만 2011년 이후 3년째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인수

1조1000억원에… 세계 최대 400만톤 생산라인 구축

세아베스틸이 1조1000억원에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했다.

세아베스틸은 4일 포스코와 포스코특수강 지분 72%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세아베스틸은 재무적투자자(FI)와 우리사주가 보유한 포스코특수강 지분 28%도 인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전체 매각 금액은 1조1000억원이라고 포스코 측은 밝혔다. 다만 포스코특수강의 베트남 형강 사업(PSSV)은 포스코에 잔류하기로 양사는 합의했다.

포스코는 양사 간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포스코특수강의 지분 20%를 당분간 보유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일정 기간 이후 20%의 지분도 세아에서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세아그룹은 세아베스틸이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면 탄소, 합금봉강 위주의 제품포트폴리오를 공구강, STS선재, 봉강 및 무계목강관까지 확대해 특수강 사업의 가치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아그룹은 이번 포스코특수강 인수를 통해 연산 400만톤 수준의 세계 최대 규모 특수강 업체로 부상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매각 협상에서 포스코특수강 직원의 고용을 5년간 보장하고 인위적인 정리해고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세아그룹의 특수강 시장 과점 우려에 대해서는 "양사 간 사업 중복 영역이 거의 없고, 중복되는 탄소합금강 분야도 포스코특수강의 점유율이 미미하다"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기업결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세아그룹 측은 설명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해운업계 '톤세제 연장' 환영

해운업계가 정부의 톤 세제 일몰 시한 연장을 환영하고 나섰다.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원료비 절감 등으로 해운업계가 흑자 전환의 기초를 다지는 가운데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하면 톤 세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운기업에 대한 톤 세제 일몰 시한이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톤 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내는 제도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톤 세 적용으로 법인세를 절감해야만 선박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업황이 개선되면 톤 세 연장은 해운기업의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해운업계가 원가를 확 줄여서 그 차이만큼 수익을 내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가 해운업계의 에코십 건조를 지원해 글로벌 해운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남호 기자 spdran@

한파 녹이고 온정 채우고… “올 겨울은 걱정 없겠네”

기업 사회공헌 현장
이투데이 기자가 가다

5 SK하이닉스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무표정이었던 할아버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할아버지의 눈이 향한 곳은 대문 안마당 한 편에 쌓여있는 1000장의 연탄 더미. 불과 몇 시간 전 건조한 표정으로 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할아버지는 얼굴에 연신 웃음을 머금고 “올 겨울은 걱정없다”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잡초로 뒤덮였던 마당과 고장난 수도꼭지, 위험에 노출돼 있던 전선 등 집안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닿으면서 할아버지의 을씨년스러웠던 보금자리는 온기가 느껴지는 러브하우스로 재탄생했다.



김지영(오른쪽) 본지 산업부 기자가 지난달 5일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에서 SK하이닉스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해 임직원들과 연탄을 옮기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노사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한 것은 SK하이닉스 노사가 함께 진행한 ‘사랑의 연탄 나눔행사’다. SK하이닉스는 매년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연탄배달과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총 7가구에 연탄 7000장을 지원했다.

지난달 5일 경기도 이천 송정동 김 할아버지 집 앞에는 연탄배달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SK하이닉스 직원 20여명이 모였다. 노사 합동 봉사활동인 만큼 현장에는 회사 직원들을 비롯한 기업문화본부장, 청주지원본부장, 이천노조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직원들은 봉사활동을 잘 마무리하자는 파이팅을 외친 뒤 세 조로 나뉘어 일사분란하게 할아버지 집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봉사 1조는 큰 낫을 손에 들고 마당에 수북이 쌓인 잡초 제거를 시작했다. 바람이 불어 조금 쌀쌀한 기운이 도는 날씨였지만 직원들의 이마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구슬땀이 맺혔다.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던 탓에 잡초를 베는 일이 쉽지 않았다. 수차례 반복된 낫질에 마당은 점차 그 모습을 드러냈다. 잡초를 제거하는 이유는 겨울에 내린 눈으로 땅이 미끄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시간여 동안 숙였던 허리를 핀 한 직원은 “잡초 위에 눈이 내리면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어 땅이 미끄러워진다”며 “낮에는 괜찮지만 어두운 밤에는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할아버지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낫질을 마친 뒤 땅에 남은 작은 잡초들을 일일이 손으로 정리했다.

마당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끝나갈 즈음 할아버지의 집 내부에서는 봉사 2조 여성 직원들의 정리 신공이 발휘됐다. 오랜 기간 혼자 지내온 할아버지의 집안은 불필요한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다. 회사원이자 주부인 여성 직원들은 능숙하게 버릴 물건과 사용할 물건을 분리하고 집안을 정리·정돈했다.

한편 부엌 쪽에서는 생활편의를 위한 작업이 진행됐다. 한겨울 추운 날씨로 동파 위험이 있는 수도관을 정비하고, 피복이 벗겨져 화재 위험이 있었던 외부 전선들은 새로운 전선으로 교체했다.

마당 한 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집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부인도 자식도 없이, 불편한 몸으로 오랜 시간 혼자 살아왔다”면서 “집안을 치우고 수도나 전기, 가스 등을 고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니 고맙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깨끗해진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매년 지역 독거노인·기초수급자 찾아
잡초 뽑고 전선 바꾸고 수도관 정비
“전기·가스 고칠 엄두 못 냈는데…”
올해도 7가구에 연탄 7000장 전달

◇추운 마음 채워준 연탄 1000장 = 이어 올 겨울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연탄 나르기가 시작됐다. 직원들은 익숙한 듯 연탄이 실려있는 트럭에서부터 집 안까지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연탄을 나를 진용을 갖췄다. 연탄을 나를 때 가장 힘든 자리인 트럭 앞과 연탄 보관소 앞에는 베테랑 직원이 자리했다.

처음 연탄을 손에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감에 힘들었지만 이내 리듬이 생기며 속도가 붙었다. 연탄 나르기의 핵심은 서로 간의 호흡이다. 연탄을 받고, 받은 연탄을 주는 것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양 옆의 사람과 리듬이 맞지 않으면 연탄을 떨어뜨리기 일쑤다. 한 조직에서 긴 시간 함께 일하고 봉사활동을 같이해 온 만큼 직원들의 호흡은 최고였다. 트럭 한가득이었던 연탄은 눈 깜짝할 사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집안 청소와 연탄 나르기 등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시간여 정도가 흐르자 곳곳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눈에 띄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직원들은 준비한 과일과 빵을 먹으며 나머지 연탄 500여장을 나르기 위한 힘을 재충전했다.

다시 시작된 연탄 나르기. 직원들은 아까보다 한층 활기찬 분위기에서 연탄을 나르기 시작했다. 처음과는 달리 직원들의 얼굴은 거뭇거뭇해졌다. 미세한 연탄가루가 얼굴에 한 꺼풀 내려앉았기 때문. 어떤 직원들은 일부러 볼 한 쪽에 연탄을 묻히며 다른 직원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

중천에 있던 해가 저물 무렵, 트럭 위에서 연탄을 집게로 집어 주던 직원이 “이제 20장입니다”라고 외쳤다. 연탄 나르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인 것. 약 2시간 동안 고정된 자세로 연탄 옮기기를 계속했던 탓에 손목은 물론 다리와 어깨가 아파왔던 찰나였다.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옆의 직원은 “20장 남았다면 이제 100장 정도 남은 거예요”라며 아직 멀었다는 표정을 지었다. 실제로 그 직원의 외침 뒤 30분이 흐른 후에야 연탄 나르기가 종료됐다.

직원들은 작업이 끝나자마자 허리를 뒤로 젖히고, 어깨를 돌리고, 바닥에 앉으며 굳은 몸을 풀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실제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된 봉사활동 내내 직원들 사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매년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줘온 만큼 직원들은 봉사활동에 익숙한 모습이었다.

뒷짐을 진 채 연탄 보관소 쪽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할아버지는 마지막 1장의 연탄이 놓이자 만면에 웃음을 띠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다. 집 단장을 마친 후 직원들은 할아버지에게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했다.

처음 할아버지 집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텅빈 연탄 창고와 잡초로 뒤덮인 마당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3시간여 만에 20여명의 직원들은 할아버지의 연탄창고는 물론 마음까지 가득 채워줬다.

김지영 기자 gutjy@

“회사와 노조는 하나”
봉사활동 함께 참여

SK하이닉스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공동 운명체로서의 노사불이(勞使不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하나다’라는 기조 아래 노사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고유의 노사관계 정신인 노사불이는 1995년 ‘노사불이 신경영 선언’을 기초로 시작된 노사정신으로, 노사 간 대립에서 탈피해 구성원과 회사, 노동조합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런 노사불이 정신을 전파하고 확산하기 위해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사불이 신문화추진협의회’를 공동 설립했고 1995년부터 임직원의 월급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기금에 적립하는 기부운동인 ‘끝돈모으기’를 통한 지역 사회공헌도 진행해 오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불이 신문화추진협의회가 진행해 오고 있는 지역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사랑의 연탄 나눔’, ‘헌혈 기부’, ‘교복 지원’ 등의 지역공동체 지원 활동이 있다.

‘끝돈모으기’ 사회 곳곳 도와
헌혈 기부·교복 지원 활동도

지난 2월 SK하이닉스 충북 청주사업장 임직원들은 1000만원 상당의 교복 상품권을 충북도교육청에 기탁했다. 김준수 노조위원장은 충북도교육청에서 이기용 교육감에게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복 상품권을 전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사전에 선발한 30여명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SK하이닉스가 기탁한 교복 상품권을 나눠줬다.

또한 신문화추진협의회는 9월 헌혈증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헌혈증 200장를 이천시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헌혈증은 SK하이닉스가 실시하는 ‘희망 나눔 헌혈 행사’를 통해 모은 것으로, 앞으로도 SK하이닉스는 헌혈증을 모아 정기적으로 공익기관에 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2007년부터 매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탄은 청주사업장 직원의 우수리 급여를 모은 ‘우수리한사랑회’ 기금으로 마련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한때 달러당 120엔 돌파…속절없는 '엔저'





7년만에 처음…日 증세연기 등 부양기조가 부채질
아베, 총선승리 유력…일각선 내년 140엔까지 전망

달러당 엔화 가치가 4일(현지시간) 장 중 120엔이 붕괴되는 등 '엔저'가 가속화하고 있다.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오후 5시 현재 전일 대비 0.02% 하락한 119.78엔을 기록했다. 달러·엔 환율은 장 초반에는 120.23엔까지 올랐다. 달러·엔 환율이 120엔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7년 7월 이후 7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일본은행(BOJ)이 시중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정권이 2차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는 등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엔화의 약세를 이끌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BOJ가 지난 10월 31일 자산 매입 규모를 연간 80조엔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후 엔화 가치는 달러에 대해 9% 급락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1.6% 위축한 것으로 드러나자, 내년 10월 예정된 2차 소비세 인상을 18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14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베 정권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엔화의 약세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통신은 전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일 일본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의 성장이 엇갈리면서 일본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마이클 울포크 뱅크오브뉴욕멜론 투자전략가는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견고하고,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통화정책은 달러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며 "외환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이달 총선에서 압승할 가능성이 큰 것도 엔화 약세 재료라는 평가다.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아베 총리가 총선 이후 경기부양에 더욱 매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즈호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니혼게이자이와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베는 총선 이후 경기부양 정책을 더 세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룸버그를 통해 월가 전문가들은 오는 2015년 말까지 달러·엔 환율이 124엔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40엔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의 주요 10개 통화에 대한 환율지수에 따르면 엔화 가치는 지난달 3.3% 하락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는 1.5% 올랐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글로벌 고용회복?…'장그래'만 늘었다

美·日 등 일자리 증가에도 '비정규직' 다수
저임금에 삶의 질 낮아져… 시위 잇달아

비정규직 문제가 전 세계적 몸살이다.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과 미국 역시 뜯어보면 사정은 마찬가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11월 실업률은 5.5%.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던 2009년 초 두 자릿수를 터치했던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졌다. 일자리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1만4000개 증가했다. 11월 일자리 수는 23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서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팍팍하다. 늘어나는 일자리 대부분은 비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 지난해 3월 기준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 수는 760만명으로 2007년 말 경기후퇴 때보다 오히려 세 배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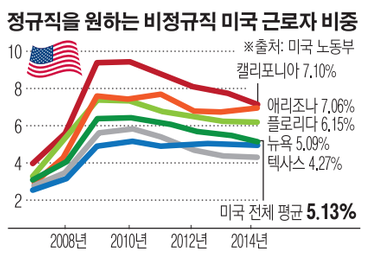
임금도 오르지 않고 있다. 10월 민간부문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대비 2%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높지 않다. 11월엔 이 상승률이 0.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4일(현지시간)엔 35개주 190개 도시에서 다양한 분야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요구사항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맥도날드 노동자들이 외친 '시간당 15달러'는 현실이 아니다. 노동부 통계로는 지난해 음식점 근무자들의 시간당 중간 임금은 8.81달러.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지난해 1분기 65만명이었던 것이 올해 1분기 100만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몸이 달아 임금 인상을 외치지만 기업들로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놨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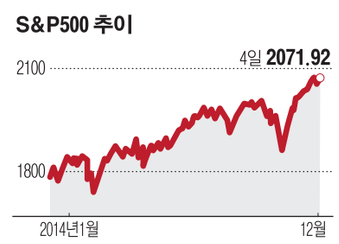
문제는 역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서민들의 생계 문제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대도시를 벗어난 일본 많은 지역들의 삶의 질은 급강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고임금 숙련 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이 워낙 세 이들을 함부로 정리할 수 없고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젊은이들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용해 필요한 부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젊은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설명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젊은이들이 극우파로 돌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윤경 기자 s914@



글로벌 긴축정책·소비부진·유로존 디플레…
美증시 내년 곳곳 '암초'

마켓워치 '10대 리스크'



2년 연속 강세…내년 조정기
금리인상 되면 배당주 타격
IS 위협 등 지정학적 변수도

미국 주식시장이 오는 2015년에 '10대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지난해 30% 오른 뒤 올해 12%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펼쳤지만, 증시 환경이 급변하면서 내년에는 상승세를 이어가기 힘들 수 있다고 4일(현지시간) 내다봤다.

먼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통화정책이 본격적인 긴축으로 선회하는 등 증시 환경이 바뀌면서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마켓워치는 권고했다.

연준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쏟아부은 유동성은 4조 달러에 달한다. 미국 경제가 3%대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중순 연준의 금리인상과 함께 유동성이 줄면, 증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내다봤다.

실세금리 상승에 따라 저금리 시대에 잘 나갔던 배당주도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현재 2.2%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내년 3%대 중반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3%의 배당률로 인기를 끌었던 코카콜라나 콜게이트파몰리브 같은 종목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종목의 주가수익비율(PER)이 20배에 달한다는 사실도 부담이다.

글로벌 성장률이 다각화하는 것도 변수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선진경제의 성장 차이가 2015년 투자전략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영국과 노르웨이가 미국에 이어 긴축에 나설 전망이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국)의 디플레이션 불안이 이어지는 등 투자자들은 지정학적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마켓워치는 설명했다.

특히 유로존의 디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 세계적인 저임금 기조는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는 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역설한 것과 같이 소득불균형을 심화하면서 정국 불안을 키울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의 실질임금은 지난 2009년부터 정체된 상태다. 같은 기간 유로존과 일본의 실질임금은 감소했다.

강달러의 지속과, 이슬람국가(IS)의 위협을 포함한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투자자들의 강한 자기만족도 내년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예상했다.

지난 2011년 일본을 휩쓴 동일본 대지진 등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의 출현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마켓워치는 덧붙였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러 불황에 美기업 활짝

"루블가치 더 떨어지기전 구매"
러시아서 아이폰·포드車 불티

러시아의 경제 악화가 미국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4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러시아는 최근 잇단 경제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러시아 통화 루블 가치의 폭락은 러시아 실물경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서방권 국가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한 영향이다. 여기에 유가 하락세로 재정수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루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루블 가치 하락세로 러시아인들이 평소에는 잘 살 수 없던 고가의 제품을 사기 시작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루블 가치가 앞으로 더 떨어져 수입물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러시아인들이 미국산 제품을 미리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10~11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대표 제품 격인 애플의 아이폰과 포드의 자동차와 냉장고 등 백색가전이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 업계 설명이다.

티모시 애쉬 스탠다드은행 신흥시장 리서치 책임자는 "(루블 하락세가) 단기적으로 내수활성화를 이끌겠지만 궁극적으로 불황과 저성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혀 끝에서 피어나는 '한폭의 그림'



4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민속화가인 한샤오밍이 혀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입과 붓으로 물고기, 채소 등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며 마무리는 손가락을 이용한다. 항저우/로이터연합뉴스

드라기 "내년초 양적완화 재검토"

〈ECB 총재〉

재무제표 부담에 금리동결
유럽 주요증시 일제히 약세

유럽중앙은행(ECB)의 연내 전면적 양적완화(QE) 시행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마리오 드라기〈사진〉 ECB 총재는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ECB 본부에서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내년초 현재 통화정책의 효과를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기 총재는 "현재 경기부양책은 ECB의 재무제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난 2012년 수준으로 재무제표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드라기 총재는 이와 함께 최근 유가 약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CB는 이날 기준금리를 0.05%로 동결했다. 예금금리는 마이너스(-)0.20%로, 한계대출금리는 0.30%로 각각 유지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제시됐다.

드라기 총재의 이날 발언은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경제전문방송 CNBC는 평가했다. ECB는 앞서 금융권의 커버드본드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들였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은 연내 국채를 매입하는 미국식의 QE 시행 여부에 쏠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 주요 증시는 이날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글로벌 리포트

구글, 12세 이하용 서비스 추진

구글이 내년에 아동용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부사장 파브니 디완지는 3일(현지시간) USA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검색기능, 유튜브, 크롬서비스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 가족이 안전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

디완지 부사장은 "이 서비스는 아이들이 구글 프로그램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여겨졌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USA투데이는 구글의 어린이 서비스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구글의 이번 사업 구상도 결국 이윤 추구의 일환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동 인터넷 중독'이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디완지 부사장은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버, 기업가치 46조원 육박

불법 영업 논란에도 차량공유앱 '우버(Uber)'의 회사가치는 고공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버는 12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전략적 투자자들로부터 6억 달러 자본 추가 조달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투자금 유치 이후 우버의 기업가치는 총 412억 달러(약 45조5800억원)가 됐다. 이는 곧 회사의 성장 기대치(Post-money valuation)가 400억 달러를 웃돈다는 뜻이다.

우버의 기업가치는 상장기업인 타임워너케이블과 맞먹는 것이며 델타항공과 세일즈포스등 유명 기업보다 높은 것이다. 페이스북이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가 50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버의 몸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우버의 몸값은 올해 크게 뛰었다. 지난해는 35억 달러였지만 올 초만 해도 182억 달러로 뛰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버의 몸값은 비상장 기업 중 단연 으뜸이다.

스타벅스 "피자·와인도 팔아요"

세계적인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미국 내 일부 매장에서 피자와 같은 저녁 메뉴와 와인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순히 커피체인점이 아닌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이 같은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초 미국 제빵회사인 '라 블라쥬(La Boulange)'를 인수했다. 스타벅스는 라 블라쥬를 인수한 후 매출 증대는 물론, 점심 시간대에 더 많은 빵을 제공하면서 소비자 층을 확대하는 성과를 올렸다.

여기서 나아가 스타벅스는 저녁음식과 주류메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카고, 시애틀,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매장에서는 치즈, 야채, 피자를 판매할 예정이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와인과 맥주도 제공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트로이 앨스태드는 "아침과 점심을 겨냥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이태동 '한국수필의 미학

"회전문 앞에 설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첨예하게 느끼곤 한다." 염정임의 수필 '회전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장이다. 속도전으로 달려가는 시대에 수필을 읽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와 근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피천득은 '수필'의 가치를 이렇게 전한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서른다섯 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다."

이태동의 '한국수필의 미학'(문예출판사)은 한국의 대표적 수필을 한 데 모으고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 해설을 더한 책이다. 이 책에는 피천득, 이상, 이양하, 박경리 등 쟁쟁한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 중년 이후의 독자라면 피천득의 인연이나 이양하의 신록예찬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도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세 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피천득의 '인연' 가운데 나오는 한 대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김춘수의 '베타니아의 봄'에는 색다른 글이 실려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예수님이 자주 방문했던 나사로의 집이 있었다. 부지런한 누이가 마르다이고 게으른 누이가 마리아이다. 집에 손님이 많아질 때는 손이 아쉬워서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나무라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 "마르다여,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의 몫이 있느니라!" 성경 속의 한 장면을 소개하면서 김춘수는 이런 해석을 더한다. "생산을 위한 노동만이 신성하고, 노동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성역을 형성한다. 예술이 이리하여 수단이 되고, 수단이 되지 않는 예술은 퇴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모든 것이 수단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 사회의 모습에 대한 문인의 단상이다.

>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 피천득, 이상, 이양하, 박경리… 한국의 대표적 수필, 한자리에

이상옥의 '하느님 엿보기'라는 글은 독특하다. 그는 몇몇 종교에 의해 세속화된 신을 가지고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우주적 차원의 원리가 해명될 수 없다고 말한다. 대신 그가 신을 발견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소품들에서다. "이제는 거꾸로 풀 한 포기나 꽃 한 송이 같은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꼼꼼히 들여다볼 때마다 그 존재가 귀납적으로 증명된다. 다시 말하며, 내가 찾아다니는 꽃이나 열매 같은 하느님의 소품들이 제각기 소우주를 이룸으로써 대우주의 섭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생명체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발견한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애당초 거시적 우주론을 통해 엿보이기 시작하던 나의 하느님이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개개 사물을 통해 구체적 모습을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니,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

김후란의 '꽃, 향기로운 대화'라는 작품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들어 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삶의 행복에 대해 말한다. "인간이 동물의 차원을 떠나서 진정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데는 지성과 감성이 있기 때문이며, 정감에 좌우되는 삶의 빛깔과 무늬가 있는 때문이다. 거기에 자연과 예술이 주는 기쁨의 부피가 보태질 때 비로서 삶의 꿈틀거림이 살아 있는 보람에 연결된다. 꽃이 기여하는 바로 그런 면에서인 것이다." 그녀는 또 "아름다움에 대한 도취, 이런 게 있음으로써 살아가는 맛이 있고 살아가는 멋이 있다. 그런 기쁨을 안겨주는 최상의 선물이야말로 꽃이 아닌가 한다"고 말한다.

한가한 시간에 읽어볼 만한 대표적 수필들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배추 한 포기의 여유



고관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어린 시절 이맘때가 되면 집집마다 겨울 동안 가족들의 건강 식탁을 위해 할머니부터 어머니, 시집 간 누님들까지 온 식구가 모여 김장을 담그곤 했다. 김장 후엔 수육에 방금 버무린 김치를 손으로 찢어 군침 꼴깍 넘기고 싸먹던 즐거움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요즘엔 대가족이 함께하는 이러한 진풍경을 쉽게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초겨울 우리 어머니들의 가장 큰 행사는 김장 담그기다.

고추와 마늘, 파 등 각종 양념과 어우러져 숙성된 김치의 효능은 이미 전 세계인들이 잘 알고 있다. 김치는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우리나라의 대표 웰빙 음식이라 할 수 있다. 며칠 전 서울광장에서 이웃을 돕기 위해 몇 천 명이 모인 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려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때 가정에서도 건강음식인 김치를 한 포기씩 더 담가 가족 건강도 챙기고 소외된 이웃과도 함께 나누며 배추 농사 짓는다고 고생한 농업인에게도 힘이 되어 보면 어떨까.

배추는 김치로 담가서 먹기도 하지만 쌈이나 샐러드용으로도 훌륭한 채소다.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노랗고 고소한 배추 속잎에 고기나 보쌈을 싸서 먹는 건 아주 좋아한다. 특히 속잎색이 노란 배추는 고소하고 단맛까지 있어 육류와 매우 잘 어울린다.

배추에는 비타민A와 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고 칼로리가 낮아 변비개선 효과는 물론 대장암 등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암세포를 억제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배추의 진한 초록색 겉잎에는 비타민A와 C, 엽록소가 많고, 노랗고 고소한 속잎에는 항암물질로 알려진 베타카로틴과 눈을 보호하는 루테인이 함유돼 있다. 배추를 이용해 만드는 김치도 저열량 식품으로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어느 식품보다도 높다.

배추의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을 분석하는 최신 기술이 속속 개발되면서 기능성이 높은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개발한 속이 노란 배추 품종은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일반 배추 품종보다 약 2~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속잎색이 주황색인 품종을 도입하여 시험재배했는데 우리나라 기후에는 맞지 않는지 속이 물러지고 배추 포기가 터져버리는 단점이 있었다. 소포자 배양이라는 최신 BT기술을 이용해 이 품종의 장점만 우리 품종으로 옮겨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결과, 속잎색이 밝은 귤색으로 화사하고, 속이 썩지 않으며 포기가 터지지 않는 우수한 품종을 만들게 됐다.

최근 배추에서 항암기능성 물질이 발견되면서 주춤하고 있는 김치 소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다. 11~12월 수확한 배추가 가장 맛있고 영양성분도 풍부하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 배추가 풍작을 이뤄 품질도 높으면서 가격도 싸다. 일찍 김장을 끝낸 가정에서도 배추를 한 포기 더 구입해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이 인스턴트 식품과 육류 과다 섭취로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가족을 위하는 길이다.

배추를 이용한 전통적 요리법인 김치, 국, 찌개, 탕 외에도 쌈, 샐러드, 부침, 무침 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리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아삭아삭 맛있는 배추로 새로운 요리를 준비해 저녁 밥상을 알차고 정성스레 꾸민다면 식탁을 준비하는 주부뿐만 아니라 식탁을 대하는 어르신과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와글와글

국내가격이 수출가보다 비싼 한국제품, 초코파이까지…



○…같은 과자임에도 내수용 과자의 마진율이 수출용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리온 초코파이의 경우 그 차이가 20%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티즌은 "마트에서 1000원에 파는 수입 과자! 아주 좋더라. 양도 많고. 이젠 그거 먹는다. 국산 과자는 믿을 수가 없어", "저 원가 못 믿겠다. 말이 안 된다", "초코파이 끊어야겠네. 내 돈 내면서 호갱짓 거리 그만해야지?", "내가 직접 초콜릿 사다가 만들어도 국산 과자 안 먹을래. 빼빼로는 너무했다", " 대한민국은 뭐든 내수가 수출용보다 더 비싸냐? 그렇다고 회사가 국민들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은 제대로 된 호갱인가 보다" 등 비난의 의견이 많았다.

○…내년부터 디젤 연료를 쓰는 3.5t 이상의 트럭과 버스, 특장차 등 상용차 가격이 최소 1000만원 이상 오른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하다. 온라인상에는 "너무하구먼. 외국 트럭처럼 옵션이 빵빵 안전 옵션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껍데기만 바꿔서 출시. 1t 트럭은 몇 년째 같은 껍데기로 팔아먹고", "진짜 집단 자살을 해야 그만둘 거냐. 트럭 운전사들 다 영세하지 않나?", "자동차 가격 오르면 당연히 운임도 오르겠지. 운임 오르면 돈 더 벌었으니 세금 더 내라고 하겠지. 그러다 결국 가지고 있던 차 헐값에 팔고 실업자 신세 되겠지. 더럽다 더러워", "부품비가 700만원이라는데 1000만원이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야? 남겨 먹어도 너무 남겨 먹는데", "화물차도 많이 수입해 주세요. 국내 자동차업체들 그전까진 절대 정신 못 차립니다" 등 지적이 많았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제일모직 공모 열기 뜨거워… 삼성SDS에 이어 '광풍'
2. 갤럭시S6 출시일, 내년 1월 초… 진실은?
3. 푸틴 위기 정면돌파 "히틀러도 러시아 무너뜨리지 못해"
4. 한화 품으로 가는 삼성 계열사…급여 격차는?
5. 자동차 배터리 점검하는 손쉬운 자가진단법

오늘의 BAE 배국남 .com

www.baekn.com

연예부 기자 변신, '힐러' 박민영



배국남닷컴은 4일 KBS 2TV 새 월화드라마 '힐러'의 여주인공 박민영을 만났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움 마제스틱 볼룸에서 열린 '힐러' 제작발표회에는 이정섭 PD와 배우 지창욱, 유지태, 박민영, 박상원, 도지원, 우희진이 참석했다.

'힐러'는 드라마 '모래시계'의 송지나 작가 작품으로 '모래시계' 세대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정치나 사회 정의 같은 건 그저 재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며 살던 청춘들이 부모 세대가 남겨 놓은 세상과 겨루는 통쾌한 액션 로맨스 드라마다.

박민영은 세상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기자가 되기를 꿈꾸는 인터넷 신문기자 채영신 역을 맡았다. 채영신은 인터넷 신문사 '썸데이 뉴스'의 기자로 현실은 기레기 소리를 듣고 있지만 꿈은 오리아나팔라치 같은 훌륭한 기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복귀작으로 '힐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캐릭터에 대한 도전의식이 생겼다. 첫 대사가 욕이었는데 한 번도 작품에서 욕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동안 무언가에 갇힌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깨고 싶었다"고 밝혔다.

박민영은 극중 연예부 기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실제 기자들을 찾아가 만나 보고, 5개월 동안 연예기사를 정독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박민영은 "기자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말 치열한 직업이란 걸 알았다. 조회수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수많은 매체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절감했다"며 " 배우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이 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 말했다.

박민영은 끝으로 "제작발표회를 앞두고 이렇게 두근거린 적은 없었다. '힐러'가 진심으로 잘됐으면 좋겠고 분명 잘될 것이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데스크 칼럼

찌라시 커뮤니케이션이 판치는 나라



배 수 경
온라인뉴스부 뉴스팀장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면 반드시 우편함을 챙긴다. 가끔 깜빡해서 하루이틀이라도 방치하면 우편함엔 온갖 전단지, 이른바 '찌라시'로 가득 찬다. 꺼내면 한 뭉텅이다. 개중에는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열의 아홉은 음식점 홍보용 찌라시다. 이런 것들은 곧바로 쓰레기통행이다.

찌라시는 배포 방법에 따라 이름도 다르고 용도도 다양하다.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대부분의 전단지는 그냥 찌라시라 부른다. 아파트 우편함에 넣는 건 포스팅, 신문이나 서적에 끼워 넣는 건 부록, 비행기나 헬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대량 살포하는 건 플라이어, 종이폭탄, 삐라다.

찌라시의 어원은 '지라스(散(ち)らす)'라는 일본어의 동사로 '흩뜨리다, 어지르다, 분산시키다'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로 건너와선 언제부터인가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모은 사설 정보지'를 의미하게 됐다. 마구 흩뿌려진 정보쯤으로 이해하면 되겠다.이 찌라시의 효시는 17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에 모이던 신사들의 쑥덕공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식지다. 당시 커피하우스는 사교의 장이었다. 사교 모임에 참여한 신사들이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돈 되는 정보가 오갔고, 이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이들이 차(茶)를 마시며 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차를 거래하게 되면서 자연히 최초의 증권거래소도 탄생했다. 여기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 정보가 체계화하면서 소식지가 생겨났다. 커피하우스는 단순한 찻집이 아닌 정보거래소였던 셈이다. 오늘날 국내에서 증권가 찌라시가 가진 파급력도 이때부터 쌓인 신뢰가 밑바탕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요 찌라시라는 것이 알고 보면 요물이다. 찌라시는 정성기인 80년대에는 한밤중에 은밀하게 팩스를 통해 유통됐고 주가도 좌우할 정도였다고 한다. 연 구독료 2000만원짜리 문건도 있었다고 하니 당시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감이 난다.

요즘에는 찌라시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방비로 유포되며 특정인을 가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물론 안면도 없는 유명 연예인에서 정치인, 경제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은 광범위하다. 호기심에, 혹은 재미 삼아 퍼나른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그 찌라시가 활동 무대를 청와대까지 넓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현재 정치권을 발칵 뒤집은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에도 요 찌라시가 연루돼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문건에 대해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는 항간에 나온 비선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정씨의 국정개입 관련 행적을 청와대가 자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2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에서 '찌라시'라는 비속어가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문건에는 '문고리 권력 3인방', '십상시' 같은 자극적인 표현들이 담겼다고 한다.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 비서관 3명을 포함한 실무보좌그룹 10명을 지칭하는 이른바 십상시와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운영 및 청와대 내부 상황을 체크하고 의견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찌라시가 뉴스와 다른 점은 사실 검증 여부다. 찌라시란 실체를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다. 말 그대로 마구 흩뿌려진 정보이기 때문이다.

본질은 청와대가 찌라시를 참고용으로 수집했다는 것이 아니다.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년도 안된 시점에 정권말기를 연상시키는 듯한 내용들이 시중에 나도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찌라시 커뮤니케이션은 사안의 본질을 떠나 자칫하면 맹목적인 비방전이나 스캔들로 비화되기 쉽다. 현재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전개 양상이 꼭 그렇다.

120년 전 실패한 갑오경장의 성공을 다짐하며 출발한 갑오년이 저무는 시점이다.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새줄로 바꿔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하자던 연초의 다짐이 찌라시 파문에 얼룩지고 있음에 안타까울 뿐이다.

sue6870@

차상엽의 시선

스토브리그, 결실 혹은 절망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스토브리그가 열렸다. 프로야구가 막을 내리면서 선수 영입과 연봉 협상의 계절이 다가온 것. '오프시즌 딜'이 정식 명칭이지만 난로(stove) 주위에 모여 야구 소식을 이야기한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하지만 이 계절이 모든 선수들에게 스토브처럼 훈훈한 것은 아니다. 올시즌 종료 후 무려 19명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으로 향했고 4일까지 총 15명이 계약을 마쳤다. 이 중 8명은 원소속 구단과, 7명은 타구단과 계약했다. 이들 15명이 잔류 혹은 이동하는 데 들어간 돈은 총 611억1000만원이다.

이맘 때쯤이면 늘 FA시장 과열론이 거론된다. 연례행사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523억원이 FA시장에 풀리며 역대 최고 FA시장을 만들었고 1년 만에 최고 기록을 또 경신했다. 한정된 시장에서 A급 선수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 구단으로서는 거액을 베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 문제는 누가 얼마를 받고 옮겼느냐가 아니다. 더 이상 FA 시장에서 1억~2억원의 돈은 큰 의미로 와닿지 않는다. 올시즌 특이한 점은 고액 FA 계약자들 중 총액에서 계약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정도일 뿐이다. 물론 계약금은 해당 선수가 최악의 경우 부상이나 부진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해도 고스란히 수령할 수 있는 돈이다.

여전히 국내 프로야구 최저 연봉은 2700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2400만원에서 최근 들어 상향 조정된 액수다. 물론 FA를 통해 고액 연봉을 요구하는 선수들을 탓할 수는 없다. 매번 구단과의 관계에서 '을(乙)'일 수밖에 없는 선수들에게 FA제도는 유일하게 선수들이 '갑(甲)'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다. 고액을 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어진 제도 하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대어급 FA의 몸값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것에 대부분의 야구인들은 공감하고 있다. 선수들 역시 이에 부분적으로 공감한다. 정해진 구단 예산에서 특정 선수에게 큰 돈을 지불하면 다른 선수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FA제도는 구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FA가 먼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대다수 선수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현행 FA 제도는 수정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높아지는 선수들의 몸값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액을 지불하면서 FA를 영입하는 구단 역시 현재의 제도를 환영하진 않는다. 공멸의 지름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몇 명의 선수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고 대부분의 다른 선수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구단 역시 공멸로 향하는 현행 FA 제도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미 프로야구는 30년을 넘게 진행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수많은 제도 변화를 경험했다. 더 늦기 전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FA 제도를 위해 구단과 선수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온라인뉴스부 차장 sycha@

객석

의료계 블랙컨슈머 대응법



조 우 성
변호사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한다. 그런데 의료계에서 블랙컨슈머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사는 이에 대응하면 되지만,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린다고 위협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통고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사실을 게시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는 물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위반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가중처벌된다.

따라서 환자가 비방글을 올리겠다고 위협할 경우, 그 행위가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가 이미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용,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포털사이트에 바로 삭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정통망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포털사이트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포털 사이트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허위사실 게재로 피해를 입은 병원측은 해당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정통망법에 따른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랙컨슈머에게 의료인이 부당하게 휘둘리는 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자수첩

동반위가 '존재감' 가지려면



김 정 유
미래산업부/ thec98@

안충영 위원장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현재, 제3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는 동반위인만큼, 다양한 현안들을 끄집어내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안 위원장은 올해 재합의 과정을 걷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보다는 자율합의를 내세운 '상생협약'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전임 유장희 위원장 때와는 다른 행보로, 그동안 동반위 수장들과 확실한 차별성을 두려는 모습이다. 실제 안 위원장은 지난 3일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부임 후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상생협력"이라며 "기업 생태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신사협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CJ, BGF리테일, 신세계, 포스코, 이랜드 등 5개 대기업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이 같은 3기 동반위의 행보에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다. 안 위원장이 강조하는 자율합의와 상생협약은 대·중소기업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양측의 중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인데, 현실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생존권이 달린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적합업종이란 확실한 대안을 포기하라는 소리 없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진행 중인 적합업종 재합의, 신규 지정과 관련해 동반위가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 상생협약은 큰 틀에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되, 중소기업들의 생계와 직결된 적합업종 지정에선 당초 취지에 맞게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게 맞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동반위의 설립 취지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아픈 몸은 깨달음을 위한 좋은 도구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영성 분야 최고 권위의 노틸러 북 어워드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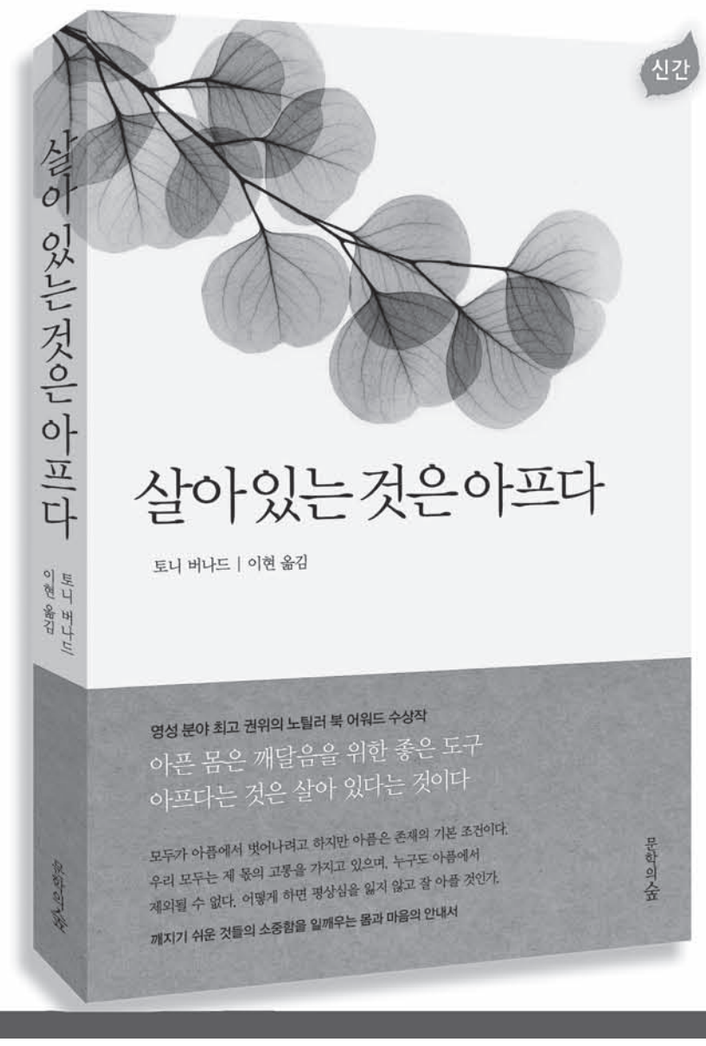
인생의 정점에서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 쓰러진 법대 교수의 감동적인 실화. 그녀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상실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되었다. 영혼에 대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인생의 춤과 함께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안내서

깨지기 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몸과 마음의 안내서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 이현 옮김 | 236쪽 | 13,500원

문학의숲 당신을 닮은 좋은책 TEL 02)325-5676



"투자 받으러 온 젊은 사업가 눈빛 봅니다"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대표

"청년 창업가들, 기술·아이디어 있지만 경영 몰라 일관성 있는 끈기로 지원… 생태계 구축 한 걸음"



한 우물을 오래 파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한 우물을 파는 일관성은 성공과 실패로 그 결과를 나누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소프트뱅크란 이름과 함께 출발한 이후 지금까지 벤처투자 한 길을 달려왔다.

문규학〈사진〉 대표가 소프트뱅크 그룹 창업자 손정의(孫正義) 회장에 대해 가장 높이 사는 점도 일관성이다.

"소프트뱅크의 비전은 정보통신 혁명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가로서 구체적인 목표들을 단계별로 세워두고 그걸 꼭 실천해 나가고 있죠. 이분이 1957년생이니까 지금 58세 정도 됐잖아요. 2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이런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다 달성해 오신 분이에요. 좀 무섭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문 대표가 투자를 결정할 때 보는 것은 투자를 받으러 온 젊은 사업가의 눈, 그리고 결의다.

"창업자의 눈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보면 면면이 다 다르거든요. 목표로 하는 시장도 다르고, 갖고 있는 기술도 다르고, 창업하는 사람의 색깔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창업자를 비롯해서 경영진이 갖고 있는 결의와 열정, 이것이 투자하는 데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투자 성과를 거두었냐는 질문은 우문(愚問) 취급했다. "벤처캐피털이라고 하면 '캐피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융업이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캐피털이 꼭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휴먼 캐피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휴먼을 트레이닝하는 시스템이 바로 벤처 캐피털, 벤처 투자죠.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조직 경험도 적고 해서 경영을 잘 몰라요. 재무, 조직관리, 인사, 평가, 회계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지원할 수밖에 없죠. 간섭이라기보다는 지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벤처 투자자들에겐 세련되고 노련한 스킬이 필요한 거죠."

문 대표는 잘 뭉치고 잘 결의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을 잘 하는 한국적 문화 때문에 벤처 사업의 시작은 잘 되는 편이고, 특히나 정부의 지원사격까지 있는 지금은 벤처 붐이 일어날 호기라고 본다. 그리고 10여년 전 겪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고 이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좌절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만으로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회사의 전략적 방향이라든지 조직 운영의 방향 이런 걸 세련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결국은 경험이 많이 쌓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벤처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일 겁니다." 김윤경 기자 s914@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무역의 날' 금탑산업훈장

30여년 에너지산업 발전 공로



GS칼텍스는 허진수〈사진〉 부회장이 지난 30여년간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GS칼텍스는 허 부회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1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허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정유업계 최초 600만 인시 무사고기록 달성 등 경영혁신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등의 성과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같은 해 GS칼텍스가 '150억불 수출의 탑'을 받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4년 동안 생산기지인 전남 여수공장을 총괄하는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고도화시설(HOU)인 제2(HCR, 수첨탈황분해시설), 제3(VRHCR, 감압잔사유수첨탈황분해시설) 중질유분해시설과 고급휘발유 원료인 알킬레이션 공정, 윤활기유 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또 중질유분해시설(RFCC, 유동상촉매분해시설) 및 제1 BTX(방향족) 공정 생산능력 확대 등 기존 생산설비의 성능을 높이는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지난해 초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진주 복합수지공장 및 체코 복합수지공장 준공, 제4 중질유분해시설(VGOFCC) 상업가동 등 GS칼텍스의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GS칼텍스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계 50여개국에 정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판매를 통해 266억 달러(약 29조4000억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허 부회장은 GS칼텍스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한 신사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과 함께 탄소섬유 LFT(장섬유 강화 열가소성 수지)를 개발해 차량 소재로 납품하는 등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억



서경배 회장

아모레퍼시픽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개하는 '희망 2015 나눔캠페인'에 10억원을 기탁했다. 전달되는 성금은 여성 가장 자립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첫 인연을 맺은 후 14년째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뷰티풀 라이프' 사업을 통해 여성 가장을 위한 지원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아모레퍼시픽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을 지정·기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취약계층 여성 가장들에게 취업지원 교육과 멘토링,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 올해 해당 사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전체 30.2%에 달한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아모레퍼시픽은 신뢰와 책임을 신조로 여기던 창업자의 뜻을 이어받아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이 더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국회의원들과 토론 나눈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

"정치권에 대한 환멸… '공공담론' 통해 풀자"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사진〉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과 토론을 나눴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대담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정갑윤 정병국 홍문종 김세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샌델 교수의 저서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뜻"이라면서 "이념과 정파를 떠나 지금 전 세계가 '분노의 시대'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와의 대담에서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에는 정의에 대한 열정과 그 가치에 대한 공공담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은 정계에 큰 환멸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당파적 갈등에 따른 정치권의 교착상태뿐만 아니라 정치, 시민사회적 공공 담론의 주제와 참여 대상이 너무 협소한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일한국의 정의사회 구현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선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면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리 오래 유지될 것 같진 않다. (통일한국에 걸맞은) 새로운 정의에 대한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한 개헌과 관련해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영국의 이원집정제 등 세상엔 다양한 정치 모델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가 나름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건강한 시민사회를 양성하는 데 답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SW산업인의 날' 원종윤 대표 등 56명 시상



원종윤 인성정보 대표와 이홍구 한글과컴퓨터 대표.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오후 서울 강남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15회 SW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올 한해 SW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5명에게 포상을, 우수 SW개발 등으로 평가받은 21명에게 '대한민국 SW대상'과 '대한민국 SW기술대상'을 수여한다.

SW산업발전유공자 산업훈장은 의료·정보기술(IT)을 접목한 '유헬스'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온 인성정보 원종윤 대표가, 산업포장 2점은 한글과컴퓨터 이홍구 대표와 콤텍시스템 남석우 대표가 각각 수상한다.

대한민국 SW대상부문은 애니캐스팅의 주조공정 해석 소프트웨어 '애니캐스팅 소프트웨어'와 시큐어가드테크놀로지의 네트워크장비 계정관리 솔루션 'APPM for Password'가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이날 행사에선 국내 SW기업의 경쟁력 신장을 위한 '케이 소프트웨어(K-SW) 포럼'도 출범한다. 포럼은 마이다스아이티와 인피니티헬스케어 등 국내 SW 전문기업 60여곳이 모여 출범하는 것으로, 국내 SW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공동 협력, 공동 인재 확보, 교류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올 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SW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K-SW 포럼이 소프트웨어와 기존 산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국가경제 혁신과 재도약의 시너지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국내 SW생산 규모는 25조5000원, 같은 기간 누적 SW수출액은 37억3000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9%, 44.0% 올랐다.

한편 한국SW산업협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최양희 장관, 유승희 의원, 권은희 의원, 전하진 의원, 강은희 의원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동아제약 "자원봉사자 응원" 대한적십자사 양해각서 체결

'박카스'가 어려운 이웃의 피로회복제인 자원봉사자를 응원한다.

동아제약은 대한적십자사와 서울 중구 소파로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본관에서 '박카스, 자원봉사자 후원' 양해각서를 3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유엔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12월 5일)의 날을 맞아 박카스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강인효 기자 kangih@



동양생명 '수호천사 음악여행'에 참석한 구한서 사장.

동양생명, 고3 수험생과 함께 '수호천사 음악여행'

동양생명은 4일 배우 박철민과 함께 인천을 찾아 '수호천사 음악여행'을 함께 진행했다.

인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교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한 '수호천사 음악여행'은 이날 공연을 포함, 총 12차례 펼쳐졌으며, 5000여명의 고교 학생들이 함께했다.

콘서트에는 영화 해적, 타워 등으로 유명한 배우 박철민씨가 재능기부자로 참여해 평소 좋아하는 시를 읊어주는 등 입시 교육에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펼쳐질 미래에 대해 용기를 심어주는 미니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공연에 앞서 동양생명 구한서 사장은 "수능시험 준비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음악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내년 3월 시작될 음악여행 2기에는 공연 횟수를 더욱 늘리고, 유명인의 재능기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더욱 가까이 학생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



1인 가구 자립청소년 위한 사회적 가족 '소셜팸' 출범

1인가구 자립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가족 '소셜팸'이 탄생한다.

한국1인가구연합은 5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K-Turtle'에서 1인가구 자립청소년에게 가족 인연을 맺어주는 신개념 사업인 '소셜팸'을 출범시킨다. 1인가구 자립청소년이란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번에 1인가구 청소년에 소셜팸을 만들어주며 돕기에 나선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

현행법상 만 1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생활하던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사회 경험이 전무함에도 집 문제부터 직장을 구하는 것까지 일순간에 성인의 위치에 놓이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소셜팸은 부모세대, 조부모세대, 형제자매세대 등 4인 이상 3세대로 구성돼 이들은 자립청소년의 문제에 공감하고 상호 도움을 주는 '진짜 가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정다운 기자 gamja@

인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윤건용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장(독성평가연구본부장 겸직) 정은주 △사업개발부 기술마케팅팀장 차신우 △해외사업팀장 박신영 △QM실장 김영희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부사장 승진〉 △생산기술부문장 송권호 △구주지역본부장 배호열 〈전무 승진〉 △미주지역본부장 안희세 △G.OE부문장 우병일 〈상무 승진〉 △연구개발부문 연구임원 윤효원 △연구개발부문 상품개발2담당 구본희 △연구개발부문 CTC담당 안용진 △생산기술부문 생산기술2담당 최민수 △중국지역본부 가흥공장 황성학 △중국지역본부 마케팅담당 조현준 〈상무보 승진〉 △호주법인장 박현민 △한국지역본부 대전공장 제조1팀 정철오 △중국지역본부 강소공장 부공장장 이규봉 △한국지역본부 금산공장 부공장장 신동필 △품질경영팀 홍문화 △연구1팀 서종범 △프랑스법인장 김병선 △글로벌 마케팅전략팀 안수정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상무보 승진〉 △재무팀 천성익

◆아시아경제TV ◇보임 △대표이사 이의철 △이사 정명수

부음

▲김종철(전 쌍방울그룹 회장)씨 별세, 김연수(서울대 의대 내과 교수)·범수(법무법인 세종 변호사)·혜경(서울국립병원 검사과 박사)씨 부친상, 김린(고려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씨 장인상, 박일미씨 시부상 =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장지 천안시 풍산공원 묘원, 02-2072-2020

▲박행철(금융감독원 부국장)씨 별세 = 4일 오후 4시, 진주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204호, 발인 6일 오전, 055-750-9440

▲이복성(포스코플랜텍 전무)씨 별세 = 4일 오전,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 특별실, 발인 6일 오전 7시, 054-260-8048

▲김호(사업)·경희(여수 여명약국)·정화(충북대 사학과 교수)씨 모친상, 이형수(여수 여명약국)·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씨 장모상 = 4일 오전 1시, 전북 전주 모악장례식장 101호, 발인 6일 오전 7시 30분, 063-221-4044

▲이원석(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선수)씨 부친상 = 3일 오후 6시, 광주광역시 천지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62-527-1000



Cover Story

돌아온 대중문화상 시즌

賞의 허무

영화·드라마·음악 관련 연말 시상식 줄이어
"받을 사람 받았다" vs "저 사람은 아닌데…"
시청자·전문가, 수상자 선정 놓고 '갑론을박'

김수현 작가 "공정성 잃은 상은 쓰레기" 비판
품질·명성·실력·가치 '공적인증 기능' 회복해
진정한 '문화콘텐츠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임지연!", "박유천!", "손예진!", "최민식!", "명량!"…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51회 대종상영화제에서
속속 수상자와 수상작이 호명될 때마다
"상 받을 만하지",
"저건 아닌데, 저 배우는 상 받을 만한 활약을 하지 못했는데"라는
수상자에 대한 관객과 시청자, 전문가들의 엇갈린 반응이 쏟아진다.
김수현은 지난 10월 1일 '2014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SBS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조인성은 11월 15일 '2014 에이판 스타 어워즈(APAN STAR AWARDS)'에서
SBS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로 대상을 수상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처럼 올 한해를 결산하는 영화, 방송, 음악 등 대중문화 관련 시상식이 속속 열리고 있다. 대중문화 관련 시상식 수상자나 수상작을 보면 올 한해 대중문화 판도를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대중문화 시상식이 외국인 한류 팬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며 한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12월 들어서는 대중과 시청자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BS, MBC, SBS 등 방송 3사 연기대상과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청룡상을 비롯한 영화상, 골든디스크 어워즈를 비롯한 대중음악상 시상식도 속속 개최될 예정이다. 물론 백상예술대상, 서울드라마 어워즈, 멜론뮤직 어워즈, 대종상, 대중문화예술상, 딤프어워즈 등 다양한 대중문화 관련 시상식이 개최돼 수많은 수상자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상이란 어떤 상이건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져야지, 공정하지 않으면 상을 받는 사람에게도 모욕이며 쓰레기 배급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작가 김수현이 한 방송사 연기대상 시상식 직후 날렸던 시상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올해도 수많은 대중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다. 시상식에서의 가장 큰 문제인 수상자 선정에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상은 다른 상과 달리 큰 의미를 담보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중문화상은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음악 등 대중문화 상품과 연예인, 스타에 대한 품질·명성, 실력, 가치를 공적으로 인증(reputation)해 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대중문화상은 방송, 영화, 음악, 엔터테인먼트 상품이 상업성으로만 치닫는 데에서 초래되는 병폐와 문제, 부작용을 완화시키며 문화작품의 완성도와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대중성과 인기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연예계에서 연기력과 가창력이라는 연기자와 가수의 본원적 실력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을 만들어 연예계와 대중문화계 그리고 대중문화의 질적 도약을 꾀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상은 홍보 효과에서부터 시청자·관객 동원, 문화상품 소비 증가, 명성과 경쟁력 확보까지 다양한 효과와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우리의 대중문화상은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대중문화상의 홍수가 하나의 원인이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중문화상의 본질과 가치를 간과한 채 단순히 대중의 눈길을 끄는 스타들이 참여해 홍보효과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적으로 대중문화상을 신설하면서 상의 권위가 실종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문화상의 권위와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수상자 선정이다. 상의 취지와 실력에 부합한 수상자가 아닌 주최측과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수상자 선정 등 공정하지 못한 수상자 선정과 공동 수상자 남발, 나눠 먹기식 수상, 젊은 신세대 스타들의 방송 출연을 위한 보험용 수단으로 수상 활용, 특정 연예기획사와의 관계 유지 용도의 시상 등으로 대중문화상의 권위뿐만 아니라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상자가 축하가 아닌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중문화상이 쓰레기 취급 당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대중문화상의 의미와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주체는 바로 방송사 등 시상식 주최자, 시상을 후원하는 단체나 업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 심사위원 등 다양하다. 다양한 대중문화상 심사를 한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대중문화상 심사를 할 때 수상 명목에 부합하는 진정한 수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주최측과 스폰서의 입장 고려나 수상자 시상식 참석 여부, 연예기획사 영향 등이다. 이런 것들이 공정한 심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라고 말했다. 배국남 기자 knbae@
그래픽 신미영 기자 win8226@

커버스토리 16·17면

‘정도전’ ‘장보리’ ‘별그대’… 안방 달군 ★들 누가 웃을까

역시 조재현… 예능은 ‘슈퍼맨’ 가족 유력

올 한해 KBS 드라마에서 단연 돋보였던 작품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정통사극 ‘정도전’이다. 그 안에서 타이틀롤을 맡아 독보적인 영향력과 미친 연기력을 선보이며 사극의 부활을 이끈 조재현이 대상 후보로 유력하다. 그는 여말선초 격동의 시기를 이겨내고 500년 왕조 기틀의 근간을 마련한 조선 건국기의 리더상을 완벽하게 표현해내 연기력은 물론 진정한 리더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까지 던지는 등 제 몫 그 이상을 해냈다. 이밖에 유동근, 박영규, 서인석, 임호 등 선 굵은 연기를 펼치는 명배우들과 함께 활약하며 빈틈없는 스토리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정도전’은 평균시청률(총 50회) 15.8%, 자체 최고 시청률 19.8%(2014년 5월 11일 36회)를 기록했다.

‘정도전’ 외에도 ‘가족끼리 왜 이래’의 유동근, ‘참 좋은 시절’의 윤여정, 이서진 등도 대상후보로 꼽힌다.

시청자의 웃음과 재미를 안겨주는 KBS 예능 프로그램의 1인자는 독보적인 시청률을 자랑하는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이다.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인 비슷한 포맷의 ‘아빠 어디가’의 독주를 막아내고 아빠와 아이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해냈다. 이휘재의 쌍둥이 아들 서언 서준을 비롯해 송일국네 삼둥이 대한민국만세, 파이터 아빠 추성훈과 추사랑, 중성적인 매력을 지닌 타블로의 딸 하루까지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모습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랑스러운 매력을 동시에 담아내며 보고만 있어도 절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들며 일요 예능 강자로 우뚝 서 올 연예대상에서 4가족이 나란히 대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KBS 정통사극 ‘정도전’ 조재현.

지상파 방송 3사 2014 연기·연예대상

올해도 어김없이 시상식의 계절이 돌아왔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방송가는 한해를 빛낸 연기자·예능인들에게 상으로 보답한다. KBS는 정통 사극 ‘정도전’으로 열연을 펼친 조재현과 육아 예능의 진수를 보인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된다. MBC는 시청률 37%를 넘긴 ‘왔다! 장보리’의 이유리를 필두로 ‘아빠! 어디가?’‘진짜사나이’의 ‘일밤’팀이 여전히 강세를 이룬다. SBS는 ‘별에서 온 그대’와 ‘괜찮아 사랑이야’ 등 수작을 배경으로 김수현, 전지현, 조인성의 대상 경합이 예상된다.

최두선·김민정·이꽃들 기자 sun@

송윤아·이유리·장나라 ‘여우’ 전성시대

MBC 연말 시상식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내공 있는 연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쟁쟁한 배우들이 줄이은 연기대상과 이렇다 할 활약이 도드라지지 않은 예능 스타들의 엇갈린 명암 때문이다.

2014 MBC 연기대상에는 송윤아, 이유리, 신하균, 장나라 등이 막강하게 자리했다. ‘마마’를 통해 연기파 배우라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한 송윤아다. 6년의 공백을 갖고 브라운관에 복귀한 송윤아는 암투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싱글맘’ 한승희로 분했다. 절절한 모성애 연기로 자체 최고시청률 21.4%를 기록, MBC 연기대상의 강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왔다! 장보리’의 흥행 주역 이유리도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자체 최고시청률 37.3%까지 치솟은 ‘왔다! 장보리’에서 이유리는 악녀 연민정 캐릭터를 소화해 화제를 낳으며 데뷔 14년 만에 시청률 일등공신으로 우뚝 섰다. 올 한해 MBC 드라마 라인업을 존재감 있게 마무리하고 있는 장나라와 신하균의 활약도 대상 후보감이다.

한편 2014 MBC 연예대상은 강력한 대상후보 없이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다. 지난해 대상 수상으로 영예를 안았던 ‘아빠? 어디가!’는 5%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일요 예능의 최하위로 추락했다.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시작해 야심차게 정규 편성된 ‘헬로 이방인’ 역시 시청률 2%대를 기록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 다만 ‘무한도전’의 경우, 기세가 꺾인 상황이나 400회를 거쳐 2015년 방송 10주년을 앞두고 있어 팬들의 지지를 다지며 대상 수상을 노리고 있으며 ‘나 혼자 산다’팀이나 ‘라디오 스타’와 ‘세바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구라가 대상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마마’로 6년 만에 컴백한 송윤아, ‘왔다! 장보리’ 흥행 주역 이유리, ‘미스터 백’으로 활약 중인 장나라.



‘별그대’ vs ‘괜사’·‘런닝맨’ vs ‘힐링캠프’ 대결

올해 SBS 연기대상 영예의 대상 후보는 김수현, 전지현, 조인성 3파전으로 예상된다. ‘신의 선물-14일’ 조승우·이보영, ‘비밀의 문: 의궤살인사건’ 한석규 등 무게감 있는 스타들도 출연했지만 작품의 흥행 면에서 다소 밀리는 형국이다.

지난 2월 종영한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두 주인공 김수현, 전지현은 단연 유력한 수상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를 넘어 중국 대표 한류 드라마로 도약한 ‘별그대’는 ‘치맥’ 열풍으로 현지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는가 하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세트장과 촬영 소품을 설치하며 관광 유치 효과까지 불러일으켰다. 특히 김수현은 이미 ‘별그대’로 2014 도쿄드라마어워즈 베스트 액터상과 2014 코리아드라마어워즈 연기대상을 차지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괜찮아 사랑이야’의 조인성 역시 유력 대상 후보다. 지난해 연기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다소 황당한 상황을 겪었던 조인성은 불과 1년 만에 유력 대상 후보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흥행과 거리가 멀었던 노희경 작가에게 흥행 타이틀을 안겨줬다는 공도 작용한다.

SBS 연예대상은 ‘매직아이’, ‘룸메이트’, ‘달콤한 나의 도시’ 등 새 예능의 인지도 확충은 실패했다. 수년간 계속된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유재석, 지석진, 김종국, 하하, 개리, 이광수, 송지효를 멤버로 한 ‘런닝맨’은 멤버 교체 없이 리얼버라이어티의 맥을 잇고 있으며 올해 중국판 ‘런닝맨’이 출범하는 등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대상 문턱에서 아쉽게 좌절한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의 대부 이경규 역시 올해도 대상 후보다.


‘별에서 온 그대’ 전지현과 ‘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

올해 최고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백상예술대상·서울드라마어워즈·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싹쓸이’

5월 백상예술대상을 시작으로 9월 서울드라마어워즈, 10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11월 대전드라마페스티벌 등 다양한 대중문화 시상식이 열려 올 한해 다양한 작품과 연예인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안겼다.

지난 5월 열린 제50회 백상예술대상에서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전지현이 TV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TV부문 최우수연기상은 ‘정도전’의 조재현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보영에게 돌아갔으며, TV남자 예능상과 여자 예능상에는 ‘마녀사냥’ 신동엽과 ‘개그콘서트’ 김영희가 각각 수상했다.

9월 열린 제9회 서울드라마어워즈 2014에서는 50개국에서 출품된 209편의 드라마 중 ‘별에서 온 그대’가 한류 드라마 최우수상을 비롯해 한류 드라마 남자배우상, 주제가 상을 받을 받으며 3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드라마 ‘굿닥터’가 미니시리즈 부문 우수작품상을, ‘상속자들’은 한류 드라마 우수상을 받았다. ‘기황후’는 시리얼드라마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0월 열린 ‘2014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서도 ‘별에서 온 그대’는 대상 등 5관왕을 차지하며 눈에 띄는 선전을 보였다. ‘별에서 온 그대’는 연기대상 김수현을 시작으로 작품상, 남자신인상, 한류스타상, 핫스타상을 수상했다.

11월 개최된 2014대전드라마페스티벌에서는 ‘괜찮아 사랑이야’의 조인성이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장편드라마 최우수 연기상은 ‘정도전’의 조재현과 ‘참 좋은 시절’ 김희선에게 돌아갔으며, 중편 드라마 최우수 연기상은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 ‘밀회’ 김희애가 받았다. 공로상은 고(故) 최진실에게 돌아갔다. 특히 올해에는 SNS 웹드라마 부문이 새롭게 신설돼 ‘출출한 여자’가 트로피를 받았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지난 9월 열린 ‘서울드라마어워즈’에서 네티즌 인기상을 수상한 김수현. 뉴시스



최민식, 2관왕의 '관록'



천우희, 독립영화 '반란'

한국영화

'수상한 그녀' '끝까지 간다' '타짜-신의 손' '군도: 민란의 시대'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명량' 등 올 한해도 한국 영화계에는 흥행작들이 쏟아졌다. 그 중 성공한 작품의 바로미터 1000만 관객을 넘긴 작품은 '변호인'과 '명량'이다. 올해 영화 시상식의 특징은 '변호인' '명량'으로 대표되는 송강호, 최민식의 건재함과 '수상한 그녀' 심은경, '한공주' 천우희의 반란으로 요약된다.

5월 27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거행된 제5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부문 대상은 '변호인'의 송강호에게 돌아갔다. 송강호는 '변호인'에서 빽 없고, 돈 없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 역을 맡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치열하게 그려냈다는 평을 얻었다.

'수상한 그녀'를 통해 차세대 여배우로 우뚝 선 심은경은 '집으로 가는 길' 전도연을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수상해 이변의 서막을 알렸다.

지난 11월 13일 진행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이하 영평상) 시상식에서는 '명량'의 최민식이 웃었다.

최민식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분이다. 호기롭게 달려들었다"며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위대한 분 앞에서 처절히 무너졌다. 그분의 무응답은 다시 한 번 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전했다.

영평상의 최대 이변은 독립영화 '한공주' 천우희의 여우주연상 수상이었다. '한공주'를 통해 연기 역량을 입증한 천우희는 "부족하지만 우리 영화가 주는 감동이 컸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같다"며 겸손한 소감을 전했지만 이날 수상으로 여배우 세대교체를 선언했다. 특히 천우희의 진가는 해외영화제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공주'는 마라케시국제영화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등에서 잇따라 최고상을 수상했다.

송강호·심은경, 백상예술상 대종상 손예진, 건재함 과시 이달 청룡상서 '빅매치' 기대

'명량' 최민식은 11월 21일 51회를 맞은 대종상영화제에서도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1700만이라는 전무후무한 관객 동원력이 수상에 한몫했다.

800만 관객을 돌파한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손예진은 심은경, 천우희의 도약 속에 여우주연상을 받고 건재함을 과시했다. 손예진은 "연기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무섭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타협하게 되고 자책감이 점점 무뎌지게 된다. 자신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고삐를 움켜쥐겠다"고 의미 있는 소감을 남겼다.

오는 17일 올해 영화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할 제35회 청룡영화상은 영화 '변호인'이 최우수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신인감독상, 각본상 등 총 10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고, 한국영화 역대 흥행기록을 바꾼 '명량'과 올해 칸영화제에서 주목받은 '끝까지 간다'가 나란히 7개 부문의 후보로 이름을 올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민식과 송강호의 진검승부와 심은경, 천우희의 세대교체는 청룡영화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두선 기자 sun@

"포스트 전도연이 나타났다"

천우희 '한공주' 국제영화제 수상…충무로 세대교체 알려

2014년 영화 시상식에서 주목할 만한 스타는 여배우의 세대교체를 이뤄낸 배우 천우희다. 2004년 영화 '신부수업'의 단역으로 시작된 그녀의 연기 인생은 '한공주'로 꽃을 피웠다.

'마더' '써니' '우아한 거짓말'에 조연으로 출연했던 천우희는 '써니'를 통해 대종상,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인지도를 높였다. 그런 그녀가 지난달 13일 진행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시상식에서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손예진, '집으로 가는 길' 전도연 등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천우희는 12월 17일 열리는 청룡영화상의 가장 유력한 여우주연상 후보다. 1000만 흥행작도 아니고, 대형 배급사의 투자를 얻어낸 상업영화도 아닌 독립영화로 일궈낸 결과라는 데 천우희의 존재감이 더욱 빛을 발한다.

천우희는 "이 상을 받기에 난 부족하다. 영화가 주는 감동이 컸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며 "아직도 얼떨떨하다. 부담은 분명히 있다. 저에 대한 기대치가 확 높아졌다. 나중에 어떤 소리를 듣든 마음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하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공주' 천우희의 진가는 해외에서 더욱 빛났다. 저예산 독립영화인 '한공주'는 마라케시국제영화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등에서 잇따라 최고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마라케시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인 프랑스 인기 배우 마리옹 꼬띠아르는 "여주인공 천우희의 연기가 놀랍고 훌륭하다. 이제 내가 그의 팬이 될 것 같다"고 극찬했다.

최두선 기자 sun@

1세대~대세 아이돌, '멜론 뮤직 어워드' 싹쓸이

대중음악

2014년 가요계를 빛낸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장르를 허무는 콜라보레이션, 1990년대 감성가수들의 귀환, 1세대 아이돌의 완전체 컴백, 신인 보이그룹의 강세 등 올 한해 가요계를 풍성하게 만든 주인공들이 다채로운 매력으로 중무장한 채 연말연시 가요시상식에 등장한다. 올해 가요시상식을 화려하게 장식할 가수는 누구일까.



지난 11월 14일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대중음악 시상식인 '2014 멜론 뮤직 어워드(MelOn Music Awards 2014)'에서는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와 함께 18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발표했다. 3개 부문으로 나눠 대상을 시상했는데, 앨범부문 대상은 god의 'Chapter 8', 아티스트 부문 대상은 아이유, 베스트송 대상은 태양의 '눈, 코, 입'이 차지했다. 신인상은 보이그룹 위너에게 돌아갔다.

특히 god는 12년 만에 다섯 멤버가 뭉쳐 발표한 'Chapter 8'로 앨범상과 TOP10상 등 2관왕을 달성해 국민그룹의 위엄을 확인했다.

손호영과 데니안은 눈물을 글썽이며 "10년 만에 완전체, 12년 만에 받는 상이라 감회가 새롭다. god가 모이는 게 쉽지 않았다. god 음악을 사랑해 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콜라보 열풍을 일으킨 '썸'의 주인공 소유와 정기고는 핫트렌드상을 받았다.

내년 1월에는 '2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기다리고 있다. 골든디스크 시상식은 여타 가요계 시상식과 달리 음반 및 음원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음반판매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2014년 1월 1일~11월 27일)에 따르면 올해 엑소K 미니앨범 2집 '중독(Overdose)'이 23만1485장의 앨범을 판매해 1위에 올랐다. 2위는 엑소M의 미니앨범 2집 '중독(Overdose)'(17만4267장)이 차지했다.

10년만에 완전체 god는 2관왕
아티스트상 아이유·신인상 위너
올해 음원집계는 '엑소K'가 1위
골든디스크·서울가요대상 기대

그 뒤를 동방신기 2집 '텐스'(15만9878)와 슈퍼주니어 7집 '마마시타'(12만59770)가 이었다. 반면 올해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가수는 동방신기다. 동방신기는 28만3100장의 앨범 판매기록을 세웠다.

내년 1월 22일에는 24회 서울가요대상도 열린다. 서울가요대상은 대상을 비롯해 본상, 신인상, 장르별 특별상 등 총 11개 부문으로 꾸며진다. 현재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뽑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 중이다. 모바일 투표 기간은 2015년 1월 20일까지다.

김민정 기자 mj_kim@



2014 NEW | WATERPROOF LEATHER | 100% WOOL

JANDIRO GOLF

눈, 비, 바람으로부터
발을 지켜주는
100% 천연양털 신발

골프화겸 일상화로 착용!

WOOL | LEATHER | OUTSOLE | WORLD CLASS LEATHER | IN-SOLE TECHNOLOGY | GENUINE LEATHER

잔디로 에스키 양털 레저화 출시!

보온, 방수, 미끌림에 강하다.

양털 레저화!



소비자가격: ₩210,000원

JM2483-02 / 색상: 짐밤색, 검정색 / 판매가격: ₩168,000원



소비자가격: ₩225,000원

JM2481-01 / 색상: 검정색, 진밤색 / 판매가격: ₩180,000원

수제 신사화!



소비자가격: ₩176,000원

JM2303(검정색) / 판매가격: ₩123,000원



소비자가격: ₩176,000원

JM2302(검정색) / 판매가격: ₩12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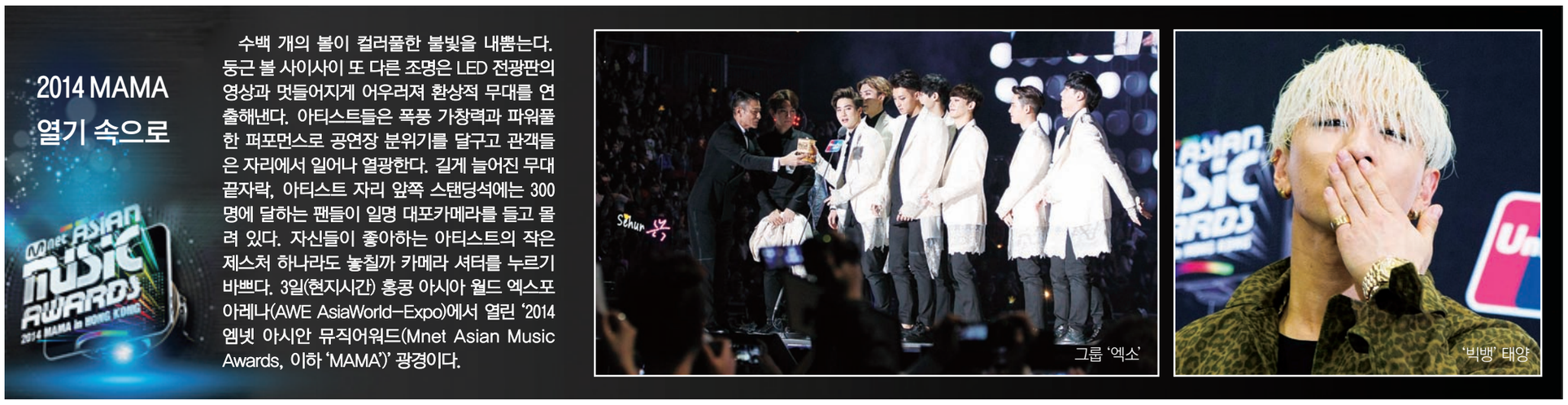


소비자가격: ₩176,000원

JM2301(검정색) / 판매가격: ₩123,000원

제품문의: 02)6909-8834 서울역점: 02)6959-4900 목동점: 02)2608-7400
www.jandiro.com 인덕원점: 031)422-8688 광주점: 062)351-9000 전주점: 063)276-5000

OPEN 서울역점
사/은/품/증/정



수백 개의 불이 컬러풀한 불빛을 내뿜는다. 둥근 볼 사이사이 또 다른 조명은 LED 전광판의 영상과 멋들어지게 어우러져 환상적 무대를 연출해낸다. 아티스트들은 폭풍 가창력과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공연장 분위기를 달구고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열광한다. 길게 늘어진 무대 끝자락, 아티스트 자리 앞쪽 스탠딩석에는 300명에 달하는 팬들이 일명 대포카메라를 들고 몰려 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작은 제스처 하나라도 놓칠까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바쁘다. 3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AWE AsiaWorld-Expo)에서 열린 '2014 엠넷 아시안 뮤직어워드(Mnet Asian Music Awards, 이하 'MAMA')' 광경이다.

그룹 '엑소'

'빅뱅' 태양


아이유

엑소 빡! 태양 끝!… K팝 '홍콩접수'

폭풍가창력·퍼포먼스 무대 열광
300여팬 대포카메라 셔터 세례
엑소 4관왕·태양 3관왕 휩쓸어
시상식 넘어 아시아 축제 장으로

올해 6회째를 맞은 '2014 MAMA'에서 최고 영예 대상은 엑소와 태양에게 돌아갔다. 이날 엑소는 '엑소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부문에서 상을 휩쓸어 4관왕을 차지했다. 대상 중 하나인 올해의 앨범상을 비롯해 올해의 가수상, 남자그룹상, 베스트 아시안 스타일상의 주인공이 된 것. 이날 엑소의 수상 소감은 남달랐다. 연이은 멤버 탈퇴로 몸살을 앓은 만큼 그간에 그들의 고민과 아픔, 다부진 각오가 느껴졌다. 찬열은 "정말 감사드린다. 사람이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엑소는 아직 건재하다"며 "앞으로 여러분께서 마음 편히 저희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주는 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은 4년 만에 솔로로 컴백해 타이틀곡 '눈.코.입'으로 큰 사랑을 받은 태양이다. 태양은 대상인 올해의 앨범상과 남자 솔로가수상,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남자 부문상을 받아 3관왕에 올랐다. 그는 "의미 깊은 상을 받아서 기쁘다"며 "이번 앨범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곡을 만나려고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다. 올 한해 정말 행복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또 아이유는 여자가수상과 인기 보컬리스트상을 받아 2관왕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신인상은 보이그룹 위너에게 돌아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대통령 서태지가 후배 가수 아이유, 블락비 지코, 바스코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꾸미는가 하면 이승철과 윤은혜가 '그날에'를 영어버전으로 열창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또 YG 힙합 유닛 지디와 태양은 신곡 '굿보이'의 무대를 최초로 선보였다. 태양은 상의를 탈의한 채 탄탄한 근육을 들어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MAMA'는 시상식을 뛰어넘어 2014년을 뜨겁게 달궜던 아티스트의 축제의 장이었다. K팝을 사랑하는 아시아 팬들이 홍콩에 한데 모여 음악을 즐기고 아티스트와 호흡하며 문화를 공유했다. 중국인 마오진(23·여)씨는 빅뱅팬을 뜻하는 노란 왕관 야광봉을 치켜들며 "빅뱅 정말 좋다. 이날만 기다렸다. K팝 사랑해요"라고 흥분하며 소리쳤다. 홍콩=김민정기자 mj_kim@


국제시장


기술자들


상의원

3년 연속 한국영화 '1억 관객' 부탁해

현재 9486만명… 이달 개봉작들 주목

2015년을 한 달 앞둔 1일 기준 한국영화는 이정재의 '빅매치'가 할리우드 SF 대작 '인터스텔라'에 맞서며 선전하고 있지만 10월 비수기 이후 이렇다 할 흥행작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쌍끌이 흥행 공식도 올해는 주춤하다. 영화계는 상반기 865만명(이하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의 관객을 동원한 '수상한 그녀'와 344만의 '끝까지 간다'를 제외하고 대박을 터뜨리지 못해 올 한해 1억명 한국영화 관객 돌파 전망이 어두웠지만 하반기 '해적: 바다로 간 산적'(866만), '군도: 민란의 시대'(477만), '타짜-신의 손'(401만) 등의 흥행으로 숨고르기에 성공했다. 특히 176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의 성공은 3년 연속 1억 관객 돌파의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다.

1일 현재 204편이 개봉한 한국영화 총 관객 수는 9486만명. 1억 관객까지 514만여 명 남았다. 역대 최다인 1억2728만명을 동원한 지난해는 물론 1억1461만명의 2년 전 같은 시기 관객 수에 비해 다소 부족한 수치다.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객 점유율 60%에 육박했던 한국영화는 상반기 43.1%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상대적으로 외국영화가 56.9%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한국영화 점유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관건은 12월 개봉 예정작들의 선전이다. 황정민, 김윤진 주연의 '국제시장'(17일 개봉), 김우빈 주연의 '기술자들'(24일 개봉), 한석규, 고수·박신혜, 유연석의 '상의원'(24일 개봉) 등 기대작들이 즐비하다. 김상호 영화평론가는 "지난해 12월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변호인'의 경우를 볼 때 1억 관객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sun@

다큐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감동과 흥행

관객평점 1위·10만관객 돌파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제작 아거스필름, 감독 진모영)가 지난 3일 오후 개봉 7일 만에 10만27명의 관객을 동원, 다큐멘터리 영화사상 가장 빠른 흥행세를 보이며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76년 평생을 사랑해도 부족한 노부부의 아름다운 사랑과 이별을 그린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지난 11월 27일 개봉 이후 연일 높은 좌석 점유율로 관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토요일에 비해 관객 수가 감소하는 일요일에도 20% 이상 늘어나며 이례적인 흥행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개봉 4일 만에 7만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동원한 것은 290만 관객을 돌파하며 다큐 영화 최고의 스코어를 기록한 '워낭소리'보다 20일 빠른 것은 물론, 44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다큐 영화 흥행 2위를 기록한 '울지마, 톤즈'보다 19일 빠른 기록이다. 더욱이 '인터스텔라' '빅매치' 등 블록버스터 상업영화들이 점령한 전체 박스오피스에서 독립 다큐 영화로 당당히 전체 박스오피스 6위를 기록하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힘은 관객 호평에서 엿볼 수 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네이버, CGV를 비롯한 각종 평점 사이트에서 '인터스텔라'를 제치고 당당히 관객 평점 1위에 올랐다. 이 같은 인기에 대해 배급사 CGV아트하우스는 "평생을 함께한 백발 부부의 일상을 통해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담아내 지금까지 없었던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따스하고 애틋한 에피소드가 관객들에게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전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두선 기자 sun@



은빛설원… 엣지 있게 날아보자

돌아온 스키시즌

경기 이천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서울 근교로 당일치기 스키여행에 안성맞춤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
하루 7000명 수용… 고속 리프트로 더 빠르게

강원 평창 보광휘닉스파크
국제스키연맹 공인 슬로프… 올림픽 주무대

강원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스키월드 정상 '글램핑존' 겨울여행 재미 더해

어느덧 12월이다. 가는 해는 늘 원망스럽다. 붙잡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래봐야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아쉬워할 일만도 아니다. 한해의 마지막 달이지만 겨울의 시작이기도 하다. 가는 시간 애석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면 어떨까.

겨울의 백미는 스키다. 마니아들은 너도나도 스키장 이야기로 꽃을 피우기 바쁘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미 시즌권을 구매했거나 한두 번쯤 스키장에 다녀왔을 듯하다. 하지만 평소 스키장과 담을 쌓고 지낸 '선비들'에게 스키장은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다. 멀게만 느껴지는 스키장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는 없을까. 우선 주변 스키장 특성부터 파악하자.

경기 이천의 지산포레스트 리조트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 중 하나다. 따라서 당일치기 스키 여행지로는 안성맞춤이다. 전형적인 도심형 리조트지만 자연적 조건을 잘 살렸고, 정통 유럽풍으로 설계돼 이국적 정취마저 느끼게 한다. 서울 근교 스키장 중에는 처음으로 스노보더 슬로프를 개방했고, 초급자와 아동을 위한 슬로프 선키드(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다. 경사 7~30도까지 마련돼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스키장이다. 2008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아시아판에는 '몸과 마음을 환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아시아의 최고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 광주의 곤지암 리조트는 서울 근교 최대 규모 스키장이다. 그러나 하루 수용 인원을 7000명 이하로 제한해 리프트 대기시간이 다른 스키장보다 짧다. 다양한 등급의 슬로프 11면과 초고속 리프트 5기 등 시설을 갖췄고, 슬로프 정상 휴게소에서는 서울 도봉산, 남산타워를 조망할 수 있다. 또 미타임패스(ME-TIME PASS)를 발행해 고객이 스키장 운영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도 경기 용인의 파인리조트, 경기 남양주의 스타힐리조트, 경기 포천의 베어스타운도 당일치기 스키여행지로 안성맞춤이다.

전북 무주리조트와 경남 양산의 에덴밸리는 호남과 영남지역 유일한 스키장이다. 전북 무주리조트 스키장은 덕유산을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총 1506실의 객실은 스키어들을 만족시킨다. 호텔 티롤은 무주리조트의 심장으로 오스트리아 풍의 건축 양식에 섬세한 벽화와 적상목으로 마감 처리해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에덴밸리는 신불산 자락에 위치, 최장 1500m의 우라노스 슬로프를 비롯해 초급과 중·상급 슬로프가 마련돼 있다. 시간당 1만1000여명의 수송 능력을 갖춘 6인승 초고속 리프트 4기가 설치돼 영남지역 스키어들에게 인기다.

강원 정선의 하이원리조트는 백운산 자락 지장산 정상과 밸리탑, 마운틴 허브 등 세 개의 정상이 있어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슬로프를 경험할 수 있다. 그중 밸리 허브로 내려와 밸리 콘도까지 가는 길은 계곡 코스로 최장 4.2㎞의 슬로프다. 이 코스는 거의 직선이며 경사도 심하지 않아 초보 스키어에게 적합하다. 국내 최초로 장애인 스키학교를 설립해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스키를 즐길 수 있다.

강원 평창의 보광휘닉스파크는 지형을 절묘하게 살린 슬로프와 높은 설질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12면의 국제스키연맹(FIS) 공인 슬로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주무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스노우보드를 위한 하이파이브, 테이블 탑, 라운드퀴터, 레일 등 스노파크를 운영해 다이내믹한 재미도 선사한다.

강원 홍천의 대명 비발디파크 스키월드는 총 13면의 슬로프로 초급(2), 중급(6), 상급(5)자들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스노보드 국가대표 훈련장이기도 하다. 특히 바발디파크 스키월드 정상에는 글램핑 존이 마련, 글램핑 트레일러 13개동과 샐러드바를 운영 중이다.

오상민 기자 golf5@



찬바람 부니… 그 맛이 생각나네

지역별 겨울 별미

꽁치를 해풍에 말린 경북 포항 '과메기'
담백하고 연한 육질 전북 부안 '설숭어'
시원한 맛이 일품인 제주 '해물뚝배기'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지역 대표 먹을거리다. 겨울여행은 더 그렇다. 겨울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지역별 겨울 별미를 모아봤다.

경북 포항에는 과메기가 겨울철 대표 먹을거리다. 특히 구룡포는 꽁치를 말리기에 적당한 바람과 기온을 지녀 과메기 생산에 유리하다. 과메기에는 단백질 성분인 아스파라긴산이 많아 술을 마셔도 쉽게 취하지 않고, 숙취 해소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수적인 알기닌과 메치오닌도 다른 식품에 비해 많이 함유돼 있다. 필수 아미노산인 리신과 트레오닌도 다량 함유돼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보충해 준다.

전북 부안의 겨울철 별미는 설숭어다. 설숭어는 첫눈이 내린 뒤 잡히는 숭어로, 특히 부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숭어는 육질이 연하고 담백해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회로 먹거나 볶음, 무침, 바비큐로도 즐기며, 해장용으로도 인기다. 전북 부안에서는 매년 설숭어 축제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19일부터 사흘간 부안상설시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충남 서산의 겨울철 별미는 계국지다. 충남 서산 일부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토속음식으로 게장 국물 또는 해산물의 국물을 넣어 만든 김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한국전쟁 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김장을 하고 남은 시레기조차 버리지 않고 염장해 두었다가 겨울 반찬으로 이용했는데 그것이 이 지역 전통음식으로 발전했다.



경북 포항의 겨울철 별미는 과메기다. 특히 구룡포 과메기는 적당한 바람과 기온에서 말려 이상적인 식감을 자랑한다. 단백질 성분인 아스파라긴산이 많아 술을 마셔도 쉽게 취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뉴시스

제주도의 겨울은 해물뚝배기가 있어 더 즐겁다.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해물뚝배기는 꽃게와 새우, 오분자기, 전복, 오징어, 성게알, 조개 등 10여 가지가 넘는 식재료가 들어간다. 전복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은 오분자기뚝배기도 겨울철 제주도의 인기 메뉴다.

부산 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건 돼지국밥이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온 피난민들의 허기를 달래준 음식이다. 그러나 요즘 부산 서면의 돼지국밥 골목은 1년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인기 메뉴가 됐다.

강원 속초에는 아바이순대가 유명하다. 한국전쟁 당시 함경도에서 속초로 내려온 실향민들이 돼지 창자를 구할 수가 없어 오징어에 주식과 부식을 섞어 넣어 순대를 만들어 먹던 것이 지금의 아바이순대가 됐다. 속초 겨울바다의 낭만적 풍경과 함께 빠질 수 없는 요리다.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겨울철 별미는 꿩만둣국이다. 메밀 만두피에 꿩고기, 숙주나물 등의 식재료가 들어가며 원래는 평안도의 토속음식이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속초의 토속음식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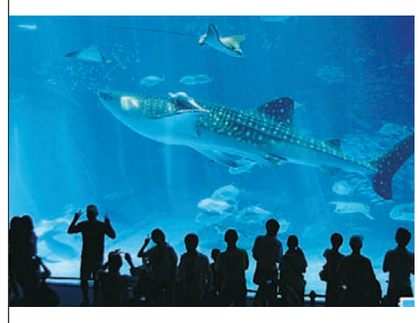
오상민 기자 golf5@

여행 단신



◇모두투어, 중국 베이징 온천여행 = 모두투어가 중국 베이징 여행과 다양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겨울 온천여행 상품을 선보였다. 호텔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혹은 라마다 호텔에서 2박을 한 후 춘휘원 호텔에서 1박하는 일정으로 객실마다 개별온천탕을 보유, 관광 후 여유로운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기예쇼로 유명한 베이징 서커스를 비롯해 전신마사지, 부국해저세계, 만리장성 케이블카, 중국인의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인력거 투어, 세계 유명배우들을 밀랍인형으로 만날 수 있는 마담투소 등 6개의 옵션이 포함된다.



◇참좋은여행, 일본 오키나와 겨울여행 = 참좋은여행은 일본 오키나와 여행 상품을 50만원대에 즐길 수 있는 겨울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남쪽 지역 규슈에서 약 685㎞ 떨어진 일본 최남단으로 연중 22도 안팎의 쾌적한 기온을 유지한다.

1975년 개최된 국제해양 엑스포를 기념해 만들어진 오키나와 엑스포 해양공원은 23만평의 대지에 열대드림센터, 에메랄드비치, 해양문화관 등 바다와 관련된 독특한 구경거리가 많다. 기름진 땅에서 자란 오키나와 파인애플을 테마로 한 파인애플파크에서는 파인애플 열차를 타고 농장을 둘러보며 신선한 과일을 만끽할 수 있다. 2박3일 또는 3박4일 일정으로, 3일은 52만9000원부터, 4일은 58만5000원부터다.



◇KRT여행사, 서유럽 5개국 여행 = KRT여행사에서는 '여왕의 선택 서유럽 5국 10일'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독일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서유럽의 핵심 국가들을 9박10일에 걸쳐서 방문하게 된다. 특히 여행사 최초로 밤에 유난히 빛을 발하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프랑스의 파리, 이탈리아의 베니스 등 서유럽 3대 야경투어가 일정에 포함됐다. 가격은 199만원부터이며,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한 유럽왕복항공권, 전 일정 시내 인근 호텔 숙박, 현지식 특식, 유럽 초고속 열차 TGV 탑승권, 개인 수신기, 인솔자 동행, 여행자보험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투어, 스위스 자유여행 기획전 = 온라인투어는 스위스 자유여행 기획전을 진행한다.

융프라우, 필라투스, 마테호른, 쉴트호른, 리기 등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유명 관광지를 배경으로 하이킹과 스키 등 겨울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어 여행의 재미를 선사한다.

알프스의 명봉 마테호른을 품은 도시 '체르마트 6일'부터 취리히, 루체른, 인터라켄 등 주요 도시를 둘러보는 '스위스 일주 10일'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며, 가격은 154만원부터(유류할증료 포함)다.

또한 파리, 로마, 비엔나 등 겨울 여행지로 성수기를 맞는 유럽 주요 국가와 연계된 스위스 자유여행 상품이 165만원부터(유류할증료 포함)다.

이용객 늘어도… 한숨 쉬는 골프장



사상 첫 '3000만명' 눈앞이지만 그린피 인하 경쟁에 매출 제자리

'법정관리' 21개 회원제 골프장 퍼블릭 전환 땐 더 어려워질 듯

전국 507개 골프장에 3000만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전국 골프장에 희망 불꽃이 피어올랐다. 사상 첫 이용객 3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최근 '내년(2015년) 골프장산업 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골프장 이용객 수가 지난해보다 4% 늘어난 3050만명에 달해 사상 첫 이용객 3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 월드컵, 인천아시안게임 등 올 한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성과라는 분석이다.

골프장은 지난해보다 13개 늘어 전국 골프장 수는 총 507개소다. 늘어난 골프장은 이용객 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서천범 소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접대 수요가 급감했지만 골프장은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주변 골프장과 가격 경쟁에 뛰어들면서 그린피 인하의 원인이 됐다"며 "접대 수요가 줄어든 반면 개인 수요자는 크게 늘었다. 개인 수요자의 증가는 그린피 인하로 이어졌고, 오히려 골프 대중화의 초석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골프장 이용객 수와 매출은 비례하지 않았다. 골프장 에이전시에 의한 그린피 인하 때문이다. 김계환 한국골프컨설팅 대표는 "골프장 그린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잔여타임 운영에 골머리를 앓는다. 따라서 대부분 골프장은 잔여타임 해소를 위해 실시간 부킹 전문 업체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결국 이용객은 늘었지만 매출은 향상되지 않는 미묘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관리 골프장도 문제다.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골프장은 22개로 이 중 21개가 회원제 골프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은 퍼블릭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퍼블릭 골프장 간 그린피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퍼블릭 골프장은 2015년에도 최소 11개, 최대 15개소가 오픈할 예정이다. 대부분 허가받은 상태에서 공사 일정이 미뤄진 골프장이다.

골프장 이용객 수는 내년에도 3000만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접대 골프 수요는 계속해서 줄고 개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개인 수요의 증가는 골프장 식음료값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골프장 내 식음료 이용이 줄어드는 만큼 거품으로 지적받고 있는 식료품값 인하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골프장 이용객 수는 소폭 늘더라도 그린피와 식음료값 인하로 인해 객단가 하락은 막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캐디선택제도 보편화될 가능성이 크다. 캐디선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1인당 3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골프 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서 소장은 "매출액과 이용객 수가 줄면서 골프장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 캐디선택제 도입, 비골퍼들에게 골프장 개방 등의 경영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오상민의 **현장X파일**

스포츠스타 2세 골퍼, 별 볼 일 있다? 없다?

안재형(49), 조혜정(61), 김준환, 김호철(이상 59). 이들에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과거 스포츠 현장을 호령하던 스포츠 스타였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프로골퍼 자녀를 둔 부모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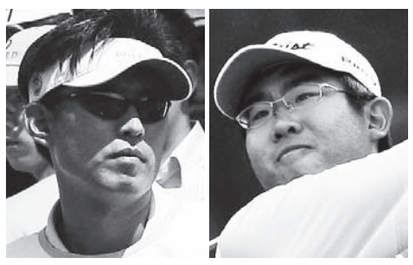
'탁구 커플' 안재형·자오즈민(51) 부부의 아들 안병훈(23)은 지난 2009년 아시아인 최초로 US아마골프선수권에서 우승한 기대주다. 지금은 유러피언 챌린지(2부)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 삼성 라이온즈 감독대행 조창수(65)와 왕년 배구스타 조혜정의 두 딸은 모두 프로골퍼다. 조윤희(32)와 조윤지(23·하이원리조트)다. 조윤희는 지난 2012년 시즌을 마치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무대를 떠났고, 동생 조윤지는 올해 상금순위 16위로 마감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 김호철 감독의 아들 김준(26)은 이탈리아 국가대표 출신으로 이탈리아에서 프로골퍼 생활을 하고 있다. 과거 '해태 왕조'의 중심 타선을 지킨 김준환의 딸 김상희(32)는 KLPGA 투어 멤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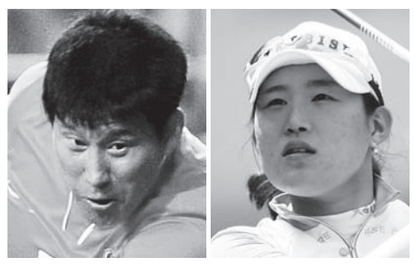
이 외에도 많다. 김용희(59)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의 아들 김재호(32), 축구스타 고정운(48)의 딸 고아라(24), 프로골퍼 최광수(54)의 아들 최형규(27) 등도 남녀 프로골프 무대를 누비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스타 2세에 프로골퍼가 많은 까닭은 타고난 운동신경과 스타 부모 곁에서 어렵지 않게 골프를 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안정적 환경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선망의 직업이어서 부모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안재형(왼쪽)·자오즈민의 아들 안병훈(오른쪽)은 지난 2009년 US 아마골프선수권에서 우승한 유망주다.

안병훈·조윤지·김준 왕성한 활동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관심 집중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고정운(왼쪽)의 딸 고아라(오른쪽)는 현재 KLPGA투어 정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부모 명성 비해 실력 못미치기도 끈기 부족… 지나친 기대도 부담

그러나 이들에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별' 탄생에 대한 의문이다. 스타 부모들의 명성에 비해 초라한 성적과 낮은 인지도는 슈퍼스타의 슈퍼주니어 탄생을 기대했던 팬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헝그리정신의 실종과 지나친 기대감이 원인이다. 시대가 변했어도 불변의 스포츠 이론이 있다. '경기력=헝그리정신'이다. 대부분의 스포츠 스타 자녀들에게는 근성은 있지만 끈기가 없고, 끼는 있지만 깡이 없다. 패배해도 돌아갈 집과 의지할 부모가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곳도 의지할 부모도 없는 절박한 사람의 경기력은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기대감은 흥미 반감의 원인이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운동인 데다 기술적으로도 민감한 운동인 만큼 담당 코치만 믿고 의지하는 일도 쉽지 않다. 더구나 부모가 골프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바로 그것이 운동에 대한 흥미를 떨어트리고 부담감은 키우는 원인이다.

프로배구 V리그 용병에 웃고 울고

OK저축은행, 시몬 활약…우승 후보에
현대캐피탈, 아가메즈 부상…5위 부진

프로배구 V리그 팀들이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에 울고 웃고 있다. 2005~2006시즌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경기에서 용병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졌다.

OK저축은행은 괴물 용병 시몬(27)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시몬은 데뷔전에서부터 지난 시즌 최고 스타였던 삼성화재 레오(24)를 압도하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2일 기준 서브 1위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격 부문에서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키 206cm에 스파이크 높이가 4m에 달하고 스피드까지 갖춰 상대 선수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OK저축은행은 시몬의 활약에 다크호스를 넘어 우승 후보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초반 주춤했던 삼성화재는 레오가 제 기량을 찾으며 최강 팀의 위용을 회복하고 있다. 레오는 1라운드 초반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이며 시몬의 괴력에 밀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라운드에 접어들며 최고 용병의 기량을 되찾았다. 1라운드에서 50% 초반에 머물렀던 공격 성공률을 50% 후반까지 끌어올렸다. 레오가 살아나자 2위로 처졌던 삼성화재도 다시 선두로 치고 나갔다.

현대캐피탈도 용병들의 활약 여부에 팀 순위가 오르락내리락했다. 올 시즌 초반 재계약한 외국인 공격수 아가메즈(29)가 무릎을 다치며 진용이 흐트러졌다. 3승 7패로 부진하며 5위에 처졌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프랑스 용병 케빈(25)을 영입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케빈은 시차 적응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른 데뷔전에서 블로킹 5개, 26득점을 기록하며 OK저축은행을 격파했다.

용병들의 기량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특유의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조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김상우 KBS N 해설위원은 "용병들이 팀에 녹아들지 못하면 분란이 생길 수 있다. 감독이나 동료 선수들이 팀 문화에 대해 대화를 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근 기자 sgchoi@



'OK저축은행' 시몬



RYN 대한체육회 공식 파트너

WORLD BEST NO.1

· 해외 20여개 국가로 수출
· 대통령 표창 수상
· 미국 오바마 대통령 표창 수상
· 대한체육회 / 대한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사 선정
·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미국 FDA 1등급 의료기 등록(국내 신발업계 최초)
· 유럽 CE 의료기기 인증(국내 기능성 신발 최초)
· 이탈리아 AC STUDIO와 디자인 협약



거래소에서 콘서트를? 진화하는 상장기념식

고정 틀 탈피 회사 특색 맞게
FNC엔터 어제 상장기념식
소속 가수 AOA 축하공연
지난달 상장 테고사이언스
정운찬 명예교수 깜짝등장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RX한국거래소에서 열린 'FNC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념식'에서 소속 걸그룹 AOA가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의 상장 기념식이 변하고 있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회사의 특색을 뽐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5일 거래소에 따르면 FNC엔터테인먼트는 4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FNC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기념식에는 경영진뿐 아니라 소속 가수와 배우가 참석했다. 특히 걸그룹 AOA는 이날 축하 공연을 펼쳐 앙코르를 받는 등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상장 기념식이 점차 회사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변하면서 FNC엔터테인먼트 역시 AOA의 공연을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상장 기념식이 단순히 대표이사의 상장 소감,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자신들의 상장 기념식을 꾸밀 수 있는 환경이 되자 유명인사들도 상장 기념식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경영진의 인맥 또는 회사와 관련 있는 유명인사가 상장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는 것이다.

지난달 상장한 테고사이언스의 상장 기념식에는 정운찬 서울대 명예교수가 등장했다. 정 명예교수는 제자인 테고사이언스의 전재욱 이사의 부탁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 7월 열린 창해에탄올의 상장 기념식에는 강영주 전 거래소 이사장이 등장했다. 창해에탄올 임원진과의 인연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파버나인의 지난 8월 상장 기념식에는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나타났다. 산단공에 속한 기업 중 파버나인이 최초로 상장하면서 강 이사장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 상장 기념식에 발걸음을 한 것이다.

코넥스 상장사인 아이케이세미콘 역시 지난달 열린 상장 기념식에 나탈리아 질레비치 주한 벨라루스 대사를 초대했다. 아이케이세미콘은 벨라루스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대표이사가 벨라루스 명예영사에 임명될 정도로 해당 국가에서 영향력이 크다. 이에 따라 나탈리아 질레비치 대사가 상장 기념식까지 참석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기념식은 상장업체의 단 하루뿐인 축제이므로 정형화된 틀을 깨고 자율적으로 꾸밀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운용사, 해외 자원개발 눈독

저금리 기조에 수익 다변화 나서
KDB인프라, 사회기반 10조 투자
KB, 멕시코 LNG 기지 지분 매입

자산운용사들이 수익원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 자원개발 등 대체투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뚜렷해지자 중장기적 포트폴리오와 신수익 차원의 일환으로 해외 자원개발, 에너지 관련 직접투자, 상품 출시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운용사들의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특별자산 전문 운용사인 KDB인프라자산운용은 지난 2일 글로벌 사모투자 전문 리서치 기관인 '프라이빗 에쿼티 인터내셔널(PEI)'이 선정한 '인프라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 투자자 30'에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KDB인프라운용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총 53억1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Fundraising)해 8위에 이름을 올린 것. KDB운용은 2003년 10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10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사회기반시설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인프라펀드사상 국내 최대 규모 발전펀드(KPEF3호, 2조4500억원)를 조성해 민자발전시장을 주도한 점이 높은 점수를 샀다.

KDB인프라운용 관계자는 "2015년에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Global Infra Fund·GIF) 운용사로서 카자흐스탄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해외건설 투자개발형 사업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 국내기업의 해외개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형, 퇴직연금 등 주식운용 부문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KB자산운용도 2012년 2월 멕시코 서부 연안의 액화천연가스(LNG) 기지의 지분을 매입해 주목받은 바 있다.

멕시코 만사니요 인수 기지 준공 이후 20년간 기지를 직접 운용하면서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 수익이 기대된다.

한국투신운용은 미국 셰일에너지 성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투자MLP펀드'를 지난 4월 설정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중위험, 중수익 투자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업황 악화 속에서도 '한국투자MLP펀드'는 설정 이후 12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집했고, 동기간 수익률 역시 12.33%를 기록해 우수한 성과로 꾸준한 입소문을 타고 있다(기준일: 2014.12.2 에프엔가이드).

이 밖에 캐나다 자원 전문 운용사인 '스프랏'이 국내 증시 입성을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과 운용사들의 행보도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운용업계 고위 관계자는 "스프랏은 금 투자로 대박을 터트린 에릭 스프랏 회장이 이끄는 운용사로 올 초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M&A를 위해 조성한 PEF(사모펀드)의 공동 운용사로 선정되는 등 최근 국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이 같은 글로벌 자원 전문 운용사가 국내에 입성하려는 것은 그만큼 국내에도 자원개발에 대한 니즈와 수요가 많음을 입증하는 만큼 운용사들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TIGER 고배당50지수' 기초 첫 상품
'타이거 코스피고배당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상장

한국거래소는 5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TIGER 코스피 고배당 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한국거래소가 10월 27일 발표한 신(新)배당지수 중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를 기초로 상장하는 최초의 상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스피 고배당 ETF 상장으로 전체 ETF 상장종목 수는 168개로 증가했다.

이 상품은 중소형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자본차익과 배당소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 추진 등으로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바 국내 배당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측은 "중소형주 비중이 높아 저유동성 종목이 편입될 수 있어 종목 편출·입 및 비중조정 시 유동성 부족으로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 종목 및 비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납부자산구성내역(PDF:Portfolio Deposit File)이 CHECK 단말기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홈페이지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3개월만에 한국주식에 지갑 연 외국인
11월 2조 사들이며 순매수 전환
'9000억 쇼핑' 미국 최대 매수국

국내 주식을 집중적으로 팔아치웠던 외국인들이 3개월 만에 순매수 기조로 돌아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외국인은 상장 주식 2조원, 상장 채권 5000억원을 순매수, 총 2조5000억원을 순유입했다.

특히 외국인들은 3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11월 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은 10월보다 7조9000억원 증가한 438조5000억원으로 전체 시가 총액의 31.8%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9000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순매수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싱가포르(5000억원), 아일랜드(200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채권은 3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갔다. 11월 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채권은 539조원으로 전체 6.9%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000억원어치 순투자하며 최대 순투자국으로 부상했고 프랑스와 인도네시아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신임 대표 선임
삼성 금융계열 20여년 근무 '운용전문가'



구성훈(사진)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장이 삼성자산운용의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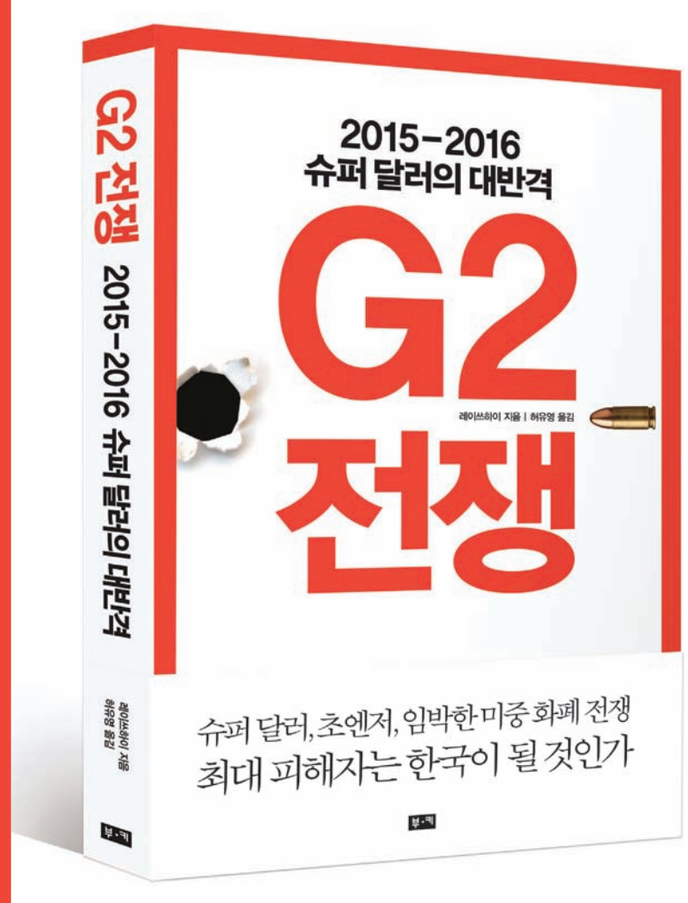
5일 삼성자산운용은 윤용암 대표 후임으로 구성훈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윤 대표가 삼성증권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에 삼성생명 출신의 새 사령탑이 선임될 것으로 관측했다. 삼성자산운용이 삼성생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삼성생명 출신의 CEO가 향후 인수 시너지 차원에서 선임될 것으로 전망했던 것.

구 대표 내정자는 그동안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에서 20년 이상 투자사업부 등 자산운용 업무를 전담한 운용 전문가다.

그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삼성그룹(제일제당)에 입사한 이후 삼성생명 투자사업부장, 재무심사팀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200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본부장으로 재직해 왔다.

김경아 기자 kakim@



미·중 화폐 전쟁 초읽기
한국 경제 최대 위기가 온다

슈퍼 달러, 'G2 파트너' 중국 자본 시장을 정조준하다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IMF의 「201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 전망」(2004년 10월)

2015-2016 슈퍼 달러의 대반격 G2 전쟁

레이쓰하이 지음 | 허유영 옮김 | 14,800원 부·키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상폐위기' 유니슨, 400억 빚독촉에 '눈물바람'

풍력발전 사업 4년째 적자… CB조기상환 덮치며 '840억 투자' 도시바도 멘붕

실적악화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유니슨에 4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가 조기상환이 청구됐다. 유니슨은 지난 2011년 일본 도시바가 인수한 풍력발전기 생산업체이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업황부진으로 4년째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고 이로 인해 보유 현금도 바닥난 상황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유니슨에 400억원 규모의 CB가 조기상환 청구됐다. 이번에 조기상환 청구된 CB는 작년 3월 연 이자율 2.5% 조건으로 발행된 것으로 당시 정책금융공사가 핵심출자자로 조성한 사모펀드인 '원익 그로쓰챔프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250억원), 산은캐피탈(50억원) 등이 인수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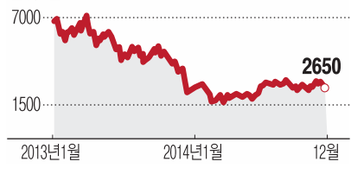
당시 사채권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14년 12월 21일부터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며 조기 상환일에 정해진 상환율에 따른 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달간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했고 그 결과 400억원 전액 조기 상환됐다.

발행 당시 전환가액은 6479원이었지만 주가하락에 따라 4536원으로 조정됐다. 지난 3월 7000원대를 넘나들던 유니슨 주가는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월에는 1600원대까지 내려앉았고 12월 현재 260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책금융공사 및 산은캐피털 등 유니슨 CB에 투자한 이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니슨의 3분기 말 현재 현금성 자산이 13억원(연결기준)에 불과하는 등 내어줄 현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니슨 주가 추이
단위: 원



회계법인은 지난해 유니슨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당기순손실 765억4000만원이 발생했고 보고 기간 말 현재로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389억 8400만원 만큼 많아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한 유니슨이 올해마저 흑자전환에 실패한다면 당장 상장폐지 위험이 커진다. 유니슨은 2011년 160억→ 2012년 14억→ 2013년 255억의 영업 손실을 이어갔다. 올 상반기까지 1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4분기 실적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도시바는 2011년 유니슨의 전환사채 400억원을 인수하면서 투자를 시작했다. 2012년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39억원을 추가 투입했고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291만주를 200억원에 매수했다. 현재 유니슨의 최대주주는 1551만여주(34%)를 보유한 도시바다.

도시바가 단조사업 등 사업 확장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유니슨에 투자할 당시만 해도 유니슨은 도시바와의 사업연계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업황 부진이 지속됐고 유니슨의 실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도시바가 유니슨에 투입한 자금은 840억원에 이르지만 현재 지분가치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

해외로 눈돌린 'CJ대한통운' 'APL로지스틱스' 인수 추진

〈싱가포르 종합 물류회사〉

인수적격후보 명단에 올라 매각가 6억~10억달러 전망

CJ대한통운이 싱가포르 APL로지스틱스의 인수적격후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블룸버그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최대 선사인 넵튠 오리엔트 라인(NOL)의 자회사 APL로지스틱스(APL logistics)의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에 CJ대한통운과 사모펀드 KKR, 북미 물류업체 XPO로지스틱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인캐피탈파트너스(Bain Capital Partners)와 CVC캐피탈파트너스(CVC Capital Partners) 또한 APL로지스틱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APL로지스틱스는 전 세계 60개국에 진출했으며 56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 물류 회사다. 자동차, 소비재 등 각 분야에서 물류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특히 북미 지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NOL 매출의 약 18%를 차지한다. NOL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APL로지스틱스를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가격은 6억~10억 달러(6688억~1조1147억 원) 사이에 형성될 전망이다. NOL은 APL로지스틱스의 매각 가격으로 약 10억 달러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수후보들이 생각하는 가격은 6억 달러 정도다.



NOL은 인수후보들로부터 다음달까지 최종 입찰서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CJ대한통운이 이번 인수합병(M&A)에 최종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14일 공시를 통해 "사업확대를 위해 APL로지스틱스와 관련해 전략적 제휴, M&A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히긴 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이 이뤄질지는 확정된 바 없다. 만약 CJ대한통운이 이번 딜에 적극 나서 인수에 성공한다면 해외부문의 성장이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희림, 건축업계 최초 '히든챔피언'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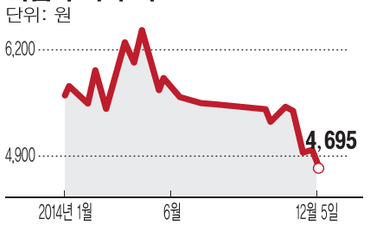
정보모델링·그린빌딩 기술력 바탕 수출입은행서 성장잠재력 인정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건축업계 최초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하는 '히든챔피언 육성 대상기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히든챔피언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강소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이후 해외진출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는 물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 기업의 성장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희림 주가 추이
단위: 원



희림은 국내 대표 종합건축서비스회사로, 이번 히든챔피언 대상기업 선정평가에서 기술력, 성장잠재력, CEO역량, 재무건전성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빌딩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그린빌딩디자인(Green Building Design), CM IT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건축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높이 샀다.

희림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우수한 건축문화와 기술력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테고사이언스, 상장 첫해 '배당파티'

주당 50원… 총 1억8500만원

테고사이언스가 상장 첫해인 올해부터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테고사이언스는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5일 밝혔다. 배당금 총액은 1억 8500만원,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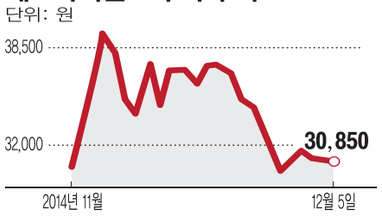
테고사이언스의 전세화 대표이사는 "상장 첫 해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며 "매년 성장을 지속해 앞으로도 회사를 꾸준히 지지해 주시는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테고사이언스의 배당 결정은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는 매우 드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기업이 한번 배당을 시작하면 배당정책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테고사이언스의 이번 결정은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테고사이언스는 올 3분기 매출액 21억 3100만원, 영업이익 8억5400만원, 당기순이익 7억1800만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76%, 37% 성장한 수치다.

테고사이언스는 국내 세포치료제 시장의 약 37%를 점유한 선도기업이다. 올해 상장으로 조달한 공모자금을 통해 기존 제품의 적응증 및 보험적용 확대, 신제품출시, 해외진출, 동물시험대체법 및 신약 후보물질 개발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갈 계획이다. 현재 주력사업은 상처치유세포치료제, 재생의료, 신약후보물질스크리닝이다.

테고사이언스 주가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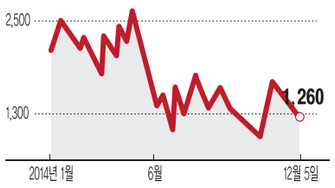


송영록 기자 syr@

이필름 자회사 GKB 알리바바 'T-몰' 입성



이필름 주가 추이
단위: 원



이필름 자회사인 글로벌케이뷰티(GKB)가 알리바바 T-몰(T-MALL)을 포함 중국 대형 쇼핑몰과 화장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판매에 나선다.

5일 이필름 관계자는 "티몰(T-MALL), 주메이(JUMEI), 큐오오텐(Qoo10) 등 중국 대형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몰인몰(Mall in Mall) 형태로 입점해 직접 화장품 판매를 할 계획"이라며 "몰인몰 형태로 진행하는 B2C 판매 전략은 내년 춘절 전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화장품 관세 철폐도 예정돼 있어 중국 내 국내 화장품은 성장의 날개를 단 상황이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도 코리아나, 제닉, 코스온, 리젠 등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필름 자회사인 글로벌케이뷰티(GKB)는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형식을 통해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 출사표를 낸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방송 이후 화장품 제조사들이 반응을 보이더니 한중 FTA가 체결되고 나서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협력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에만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2차례나 진행하고 있다.

GKB는 미려밀마를 통해 국산 화장품의 광고 및 간접 직접 판매를 진행하고 중국의 5대 쇼핑몰과 제휴해 직구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할 계획이다.

이필름 관계자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의 T-몰을 비롯해 주메이, 큐오오텐과도 제휴를 맺고 현재 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매일유업,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

신용등급 'A'→'A+' 3년·5년물 모두 성공

매일유업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경기 민감도가 적고 저금리 기조에서 금리 메리트가 있는 'A' 등급이라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최근 400억원 규모 3년만기 회사채와 200억원 규모 5년만기 회사채 수요예측에 성공했다. 매일유업측은 증액없이 6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수요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발행금리는 3년·5년물 모두 회사측이 제시한 공모 희망금리 하단보다 낮게 결정됐다. 발행금리가 공모 희망금리 하단으로 결정됐다면 회사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의미다.

전일 민평금리 기준 3년물은 2.6%, 5년물은 2.9%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면 실제 발행금리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절대금리가 낮아지면서 매일유업도 3년물과 함께 5년물을 동시에 발행한 것. 매일유업의 신용등급은 최근 'A'에서 'A+'로 상향조정됐는데, 이 역시 회사채 발행 부담을 줄여줬다.

IB 업계에서는 매일유업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성공한 것은 기관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내수 업종인데다, 신용등급 메리트까지 겹쳐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등급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한 IB 관계자는 "'A' 등급 회사채가 희귀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를 타지 않는 식음료 기업이라 기관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

이트론, 차세대 인텔 SSD 시리즈 출시

이트론은 인텔 낸드 플래시 기반에 PCIe 3.0과 NVMe를 지원하는 차세대 SSD인 인텔 SSD DC P3700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인텔 SSD 데이터 센터 제품군의 최상위 제품으로 PCIe 기반으로 업계 선두의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를 최신화하는 획기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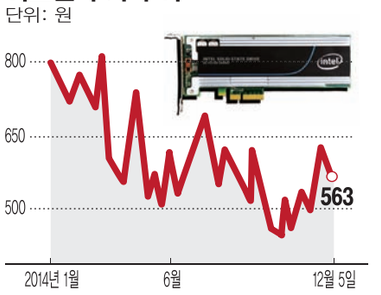
특히 PCIe를 기반으로 기존의 6Gbps의 SAS/SATA3보다 최대 6배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여 인텔 제온 프로세서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인텔 SSD DC P3700 시리즈는 2800GB/s와 1900GB/s의 쓰기, 읽기 속도와 더불어 45만 IOPS의 4k 랜덤 읽기 성능과 17만 5000IOPS의 4k 랜덤 읽기 쓰기 성능을 제공, 이는 7개의 SATA SSD의 병렬화에 근접하는 성능이다.

또한 서버 기반의 데이터 전송에 효율적인 인텔 제온 프로세서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빠르게 제공해준다. 아울러 대용량 스토리지를 통한 단일 스토리지 볼륨으로 서버가 요구하는 동시 사용자와 더불어 그게 준해 상승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한계성을 높여준다.

인텔 SSD 공식 대리점으로 인텔 SSD DC P3700 시리즈에 대해 5년간의 워런티를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Realssd.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트론 주가 추이
단위: 원



설경진 기자 skj78@

1초 순간포착… 캠시스, 블랙박스 선봬

캠시스는 TAT 저장방식의 블랙박스 'CL-100B'(팬텀)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30초~1분 단위 녹화 방식인 기존의 FAT(File Allocation Table)방식 대신 TAT(Time Allocation Table) 저장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TAT 저장방식은 실시간(초 단위)으로 녹화해 영상을 하나의 파일로 인식하고 매 순간의 영상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사고 시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안전하게 사고영상저장이 가능하다.

CL-100B(팬텀)은 4인치 LCD로 전방 Full HD, 후방HD 영상화질의 2채널 블랙박스로 'Sony Exmor Senser'를 채용해 야간에도 뛰어난 화질을 자랑한다. 이 제품은 OBD-II 연계해 악셀페달, 브레이크페달, 방향지시등, 기어레버, RPM, 속도 등 차량 운행 정보를 주행 영상과 함께 저장해 예기치 않은 사고에서 명확한 사고 상황을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기존 FAT방식을 적용할 경우 메모리에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와 소비자의 주기적인 포맷 관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박영태 캠시스 대표이사는 "앞으로 커넥티드 카 기능을 지원하는 차량단말과 통신(WIFI, 3G, LTE) 연계한 블랙박스 개발을 확대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캠시스 주가 추이
단위: 원



김유진 기자 eugene@

앞으로의 에너지 기술은 얼마나 더 좋아질까?

쓰지 않으면
흘려 보낼 수 밖에 없던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기술

자연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시너지를 일으키게 하는 기술

생활 속 에너지 낭비를 사라지게 하는
스마트한 관리 시스템까지

LG는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혁신 기술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면서도
지금보다 풍족한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



LG 전력저장전지
사업부문 **박소영**씨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의
확산을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LG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태양광 모듈·전력변환장치·스마트 LED 조명·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에너지 관리시스템·전기차 배터리/충전기 등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LG